

ART BUSAN MONTHLY

# 예술부산

2025·2  
VOL.236



우수콘텐츠잡지  
2023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 예술 아카데미

## 수강생 모집 중

### 모집일정

수시모집 또는 분기별 모집  
누구나 선정가능

###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 접수

### 수강기간

2025년 1월 - 12월 (3개월씩 모집)  
(1분기 1-3월, 2분기 4-6월  
3분기 7-9월, 4분기 10-12월)

### 계좌번호

부산은행 310-01-001290-2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 문의전화

070-4206-9140

순번	프로그램명	모집인원	요일 및 시간	장소	수강료
1	팡팡노래교실	240명	화) 13:30-15:30	1층 공연장	*3개월 3만원
2	한국무용교실	20명	목) 13:00-14:50(심화반)	4층 연습실	3개월 12만원
3		20명	목) 16:00-17:50(기초반)	4층 연습실	3개월 12만원
4	통기타교실	20명	수) 11:00-12:00	2층 연습실	*3개월 15만원
5	아랑고고장구	20명	수) 13:00-14:30	2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6	댄스스포츠	20명	화,목) 10:00-10:50	4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7	라인댄스	20명	화,목) 11:00-11:50	4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8	웰빙댄스	20명	월) 10:00-11:30	4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9	너도나도 방송댄스	20명	수) 10:00-11:50	4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10	가곡교실	20명	수) 14:30-16:00	2층 연습실	*3개월 15만원
11	서양화 교실	20명	화) 10:00-11:50	4층 회의실	*3개월 15만원
12	사진아카데미(초급반)	20명	목) 10:00-11:50	4층 회의실	*4개월 12만원

\* 수강료 외 재료비, 반주비, 교재비 별도

\* 일정 및 수강료의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산예술회관

2025 걸다가 만나는 버스킹

# 점심버스킹

# INMADANG

## 모집 공고

부산예술회관 야외마당 무대를 활성화하고 여유로운 점심을 예술과 함께 보내며 소확행을 가질 수 있도록 열정과 재능을 갖춘 예술가 혹은 버스커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5. 2. 4.(화)~2. 7.(금) 15시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artbusan@hanmail.net)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부산예술회관 홈페이지 공지사항-공모요강 확인)
  - 지원규모: 최소 10만원~최대 50만원이며 개인 또는 팀 지원 가능
  - 사업내용: 매주 수요일 40~50분 이내, 개인/팀당 주에 1회(총 2회) 운영
  - 사업장소: 부산예술회관 야외마당



## 부산예술회관은

공연장, 전시실, 회의실, 연습실을 실비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부산예술회관은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이 순수한 열정과 참여로  
대중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만나는 곳입니다.  
문화적 향유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공연, 전시, 문화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무한한 창작공간이 되도록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 문화를 제공합니다.

### 부산예술회관 대관시설 면적

공연장	597.56㎡ (240석)		
회의실	87.62㎡	3층 전시실	122.57㎡
4층 전시실	116.32㎡	4층 연습실	102.12㎡
2층 연습실	94.05㎡	1층 연습실	52.62㎡
지하주차장	약 60대 주차 가능		

### 부산예술회관 홈페이지

[www.bsart.or.kr](http://www.bsart.or.kr)

대표전화 051) 631-1377

대관문의 051) 612-1376



# FEBRUARY

# 2

공연장 / 전시장 / 회의실 / 예술아카데미 / 야외광장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부산무용협회 제63차 정기총회 10시, 051)632-5116
2	3 웰빙댄스(4층연습실) 10시-12시	4 김정현의 팽팡노래교실 13시30분-15시30분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4층연습실) 10시-12시	5 아랑고고장구&가곡교실 (2층연습실) 12시-17시 방송댄스(4층연습실) 10시-12시  (오전)부산예총 2025 서포터즈 예담 O/T 051)631-1377 (야간)부산사진작가협회 간사회 051)631-4111	6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4층연습실) 10시-12시 한국무용 교실(4층연습실) 14시-17시50분  (야간) 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7	
9 라희음악학원 LAHEE FRIENDS CONCERT 8TH 18시, 051)747-4850 010-9088-5755	10 웰빙댄스(4층연습실) 10시-12시	11 김정현의 팽팡노래교실 13시30분-5시30분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4층연습실) 10시-12시	12 아랑고고장구&가곡교실 (2층연습실) 12시-17시 아카데미 방송댄스 (4층연습실) 10시-12시	13 제6회 태동숙 개인전(3층) 010-2844-2614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4층연습실) 10시-12시 한국무용 교실(4층연습실) 14시-17시50분  (야간) 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14 충그리다무용단 제3회 충그리다 무용단 정기공연 19시 30분 010-4258-2009  제6회 태동숙 개인전(3층) 010-2844-2614	15 사진작가협회 정기총회 13시, 051)631-4111  제6회 태동숙 개인전(3층) 010-2844-2614
16 리틀모짜르트음악학원 꿈꾸는 아이들의 세상 19시, 010-9400-0159  제6회 태동숙 개인전(3층) 010-2844-2614	17 제6회 태동숙 개인전(3층) 010-2844-2614  아카데미 웰빙댄스 (4층연습실) 10시-12시	18 제6회 태동숙 개인전(3층) 010-2844-2614  김정현의 팽팡노래교실 13시30분-15시30분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4층연습실) 10시-12시	19 제6회 태동숙 개인전(3층) 010-2844-2614  아랑고고장구&가곡교실 (2층연습실) 12시-17시 방송댄스(4층연습실) 10시-12시	20 부산예총 정기총회 17시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4층연습실) 10시-12시 아카데미 한국무용 교실 (4층연습실) 14시-17시 50분  (야간) 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21	22 중앙아트메니지먼트 제72회 중앙음악 전국콩쿠르 9시, 010-4864-5263
23 헤이데이 댄스 아카데미 헤이데이콘서트 VOL.2 15시, 051)611-2194	24 빛누리사진가회 정기회원전 _내가본부산2(3층) 010-6280-5236  웰빙댄스(4층연습실) 10시-12시	25 빛누리사진가회 정기회원전 _내가본부산2(3층) 010-6280-5236  김정현의 팽팡노래교실 13시30분-15시30분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4층연습실) 10시-12시	26 제이엔에스에듀라이즈여학원 졸업식 및 시상식 10시 30분, 051)632-0582  빛누리사진가회 정기회원전 _내가본부산2(3층) 010-6280-5236  아랑고고장구&가곡교실 (2층연습실)12시-17시 방송댄스(4층연습실) 10시-12시	27 아름무용학원 LOOK&KWANG DANCE CONNECTION 19시 30분 / 051)603-0026, 010-9219-2609  빛누리사진가회 정기회원전 _내가본부산2(3층) 010-6280-5236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4층연습실), 10시-12시 한국무용 교실(4층연습실) 14시-17시 50분  (야간)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28 세라음악학원 세라정기연주회 19시, 051)808-5570  빛누리사진가회 정기회원전 _내가본부산2(3층) ~3월 2일까지 010-6280-5236	



# ART BUSAN MONTHLY VOL.236

## 2025 FEBRUARY 2

### CONTENTS

#### 에세이

- 08 부산예총 : 2025년 계획
- 10 2024 이바디예술단 정기연주회
- 14 예술의 흔적, 원로 예술가들의 연륜과 해안으로  
지역 예술의 내일을 짊어 본다
- 22 사진아카데미 심화반 전시회
- 24 부산시민회관 - <2025 부산시민회관 신년음악회>
- 26 2024 국립해양박물관 기획전시 - 항해와 시계
- 28 국립부산국악원 - 2025년 국악극 <낮숨 하나, 밤숨 하나> 공연
- 30 KT&G 상상마당 부산 - 프란츠 카프카 사후 100주년 기념  
<GIFT Vol. 3: 프란츠 카프카> 전시
- 32 부산근현대역사관 -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억상자' 전시
- 34 KFA세안문화원 - 거리의 서늘 전시

#### 포토에세이

- 36 Beach Story \_ 김효숙

#### 時雨일기

- 40 겨울, 그 소중한 계절 \_ 문경희



이바디예술단 2024년 정기연주회



### 인물포커스

44 시각예술가 정안용 \_ 이건희

### 예인탐방

46 부산꽃예술작가협회 신임 회장 최정애 \_ 김재곤

### 예술가열전 229

48 지휘자 김영근 \_ 김윤선

### 손으로 쓴 문학

52 흥시 \_ 권미숙

### 들어다보기

54 영화/ 영화의전당 고인범 대표

56 문화/ 부산문화재단 오재환 대표

58 미술/ LEO KIM 작가의 '감정의 스펙트럼展' \_ 권오혁

### 기획연재

60 건축과 서예Ⅷ - 조선시대 국립지역교육기관, 기장향교 \_ 이현주

64 출산을 높이기는 '행정 지혜 총합'의 가룩한 결과물 \_ 심수화

### 열린마당

68 K-문화 시대에 우리의 예술과 건축은? \_ 허동윤

72 예총·전사·공연 뉴스

79 신간 안내

82 메세나 광장 & 정기구독회원 모집

2025년 2월 통권 236 <http://www.artpusan.or.kr>

1997년 10월 15일 정기간행물 등록(2011년 8월 31일 변경등록번호 부산라-01255)

발행일\_ 2025년 1월 24일 발행처\_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주소\_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8 부산예술회관

전화\_ 051)612-1372 팩스\_ 051)631-1378 이메일\_ artbusan1997@naver.com

발행인 겸 편집인\_ 오수연 편집고문\_ 이봉두(건축가회), 강명욱(국악협회), 김갑용(무용협회), 이석래(문인협회), 최장락(미술협회), 강종관(사진작가협회),

이정남(연극협회), 안구성(연예예술인협회), 서영조(영화인협회), 권성은(음악협회)

편집기자\_ 박준영, 이건희 객원기자\_ 김재곤 디자인\_ 두손컴 제호\_ 김종문

※ 본지는 부산광역시로부터 발간비 지원을 받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부산예총의 의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산예총 : 2025년 계획

부산예총은 2025년을 '글로벌 문화예술 도시'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선포하고, 혁신적이고 다채로운 문화예술 활동을 펼쳐갈 것이다. 부산시의 글로벌 허브 도시로 나아가는 길에 '생활이 곧 예술'이 되도록 다양한 예술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 오수연) 산하 건축 국악 무용 문인 미술 사진 연극 연예 영화 음악 꽃작가 차문화, 12개 단체와 함께 시민들과 호흡하는 다양하고 알찬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 편집실

## 2025 예술렉처콘서트

부산 시민들을 위한 교양 강좌를 준비하고 있다. 부산예총에서는 시의성 있는 주제로 이슈와 세상의 흐름을 읽고 체득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강연회를 열고 있다. 지역의 명사들을 초청하여 변화하는 시대 상황을 짚어보고 시민들과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져본다.

## 문화예술 서포터즈 예담 3기

부산예술회관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를 위해 홍보하고, 대외활동을 도우는 문화예술 서포터즈 '예담'(예술을 담다) 3기를 모집한다.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참여자들은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친다.

## 예술아카데미

부산예총은 2011년부터 예술아카데미를 열고 있다. 올해도 노래교실, 한국무용, 아랑고장구, 댄스스포츠, 라인댄스, 수채화교실 등 12개 프로그램을 1월부터 12월까지 부산예술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부산 시민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 2025 문화가 있는 날 '예감'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부산예술회관에서 다양한 공연, 전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예술을 통한 감동을 전한다. 예술단체들이 참여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성악, 클래식, 국악, 무용 등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회를 연다.



### 제39회 부산청소년예술제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 해소와 진로를 찾아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예총 산하 12개 단위협회가 각 예술분야의 특성에 맞는 행사를 연다. 청소년들이 잠재된 예술에 관한 관심과 열정을 깨우는 부산청소년예술제는 4월과 5월에 공연, 전시, 경연대회 등을 개최한다.

### 2025 부산예총 갈매랑 축제

2025 부산예총 갈매랑 축제는 부산시와 함께 주최하고 부산예총 산하 12개 단위협회를 비롯한 우수한 단체가 참여하는 종합적인 융합예술 축제다. 올해는 5월 말에 시민참여형 축제로 공연, 전시, 예술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 제14회 젊음의 축제

대학생 및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경연 축제이다. 청년문화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한 축제는 올해도 녹음으로 푸른 7월에 14회째를 맞아 청년문화를 꽃피울 예정이다.

### 제63회 부산예술제

부산예총의 12개 단위협회가 각 장르별 예술의 특성을 갖고 참여하는 부산을 대표하는 종합예술축제이다. 부산시의 '페스티벌 시월' 기간에 축제를 열어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부산예술상과 예술문화 공로상 시상식도 축제 기간에 열린다.

### 예술잇지

부산예총의 예술아카데미를 수강한 학생들이 1년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는 연말 발표회로 '예술과 생활을 잇는다' 뜻의 행사이다. 2022년부터 개최하여 '나도 무대에 설 수 있다'는 동기를 북돋아 주고 있다.

### 부산예술회관 합창단

- 정기연주회

부산예술회관 예술단 합창단이 일년 동안 연습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온 곡들로 정기 공연을 12월에 개최한다. 부산 시민들로 구성된 합창단은 합창으로 공동체 정서를 공유하고, 순수 예술의 친근하게 시민들과 나누고자 한다.

### 2025 굿바이 송년

부산예총은 12월에 부산예술인들이 다채로운 공연으로 시민들에게 한 해의 노고를 위로하는 '굿바이 송년' 행사를 연다. 세모의 깊어 가는 겨울밤에 음악, 춤, 연극 등 다채롭고 풍성한 볼거리로 예술인들과 시민들이 함께 한해를 갈무리하는 자리다.

※ 행사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4 이바디예술단 정기연주회〉

구장쟁이... 울림과 떨림의 한판

2024. 12. 26. 오후 7시 부산예술회관

이바디예술단의 정기연주회 〈구장쟁이... 울림과 떨림의 한판〉이 2024년을 마무리하는 12월 26일에 열렸다. 날씨도 제법 추웠고 연말 분위기도 느껴지는 평일 저녁이었지만, 전통예술을 좋아하고 아끼는 한 사람으로서 즐거운 마음으로 부산예술회관에 입장하였다.

개인적으로 '이바디'라는 어휘가 주는 숨은 뜻이 궁금하여 검색해보니 '잔치, 축제'라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이었다. 그래서일까? 알 수 없는 친근감이 들기도 한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1994년도에 창단한 전통예술단체이며, 부산에서 30여년 동안 활동한 전설적인 팀이라니 사뭇 경외감마저 들기도 하였다.

연주회 제목 또한 그럴싸하다. '구장쟁이'라니...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



등절하였고, 멍하니 유추하고 따져보니 '구장'이라..... 앞을  
 절과 뒤음절을 살짝 바꾸어 배열하고 적어놓으니 그 의미가  
 은근 불순하다. '구장쟁이'..... '장구쟁이'..... 공연 내용을  
 예상해 보는 재미있고 멋진 파격이라 생각되었다.

연주회의 시작은 여느 풍물굿패 공연이 그러하듯 공연장  
 무대 정반대, 객석의 등 뒤에서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진행  
 된다. 치배들이 무대 쪽으로 걸어서 입장하고, 양쪽 옆 복도  
 에서는 소고쟁이들이 노래와 춤을 추며 관객들과 소통을  
 하는, 공연자와 관객이 하나가 되게끔 구성되었다. 액을 몰  
 아내고 잡구잡신을 물리치는 짧지만 재미나는 구성의 즐거  
 운 노래라 나도 모르게 3월~ 4월~ 5월~...하고 치배들과 같  
 이 따라 부르게 되는 아주 흥겨운 액땀이 타령이었다.

어두운 암전과 함께 분위기가 뜨겁고 달라졌다. 차분히  
 앉아서 장구로만 연주를 하는데, 대한민국 삼도의 뛰어난  
 장구가락을 모아서 삼도설장구라는 이름을 붙인 연주 형태  
 이다. 치배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

를 장구로 들려주는 듯하다. 비 오는 날 우산도 쓰지 않고  
 달려 나가봐~~ 같은 순수한 동심의 이야기를 구성지게 들  
 려주었으며, 어느 시점에 가서는 달그락 달그락 들락날락...  
 때리는 듯 하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는, 우루루 쿵쿵 태산  
 과 같은 굉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가 놓았다가 하곤  
 했다. 장구만이 해낼 수 있는 아주 멋진 형태의 연주임을 다  
 시 느껴본다.

다시 암전. 서서히 밝아지는 조명 아래 팽과리, 북, 장구, 징  
 사물(四物)이 등장하는 이른바 사물놀이의 연주가 시작된  
 다. 대한민국 지방 곳곳의 귀한 가락을 모아 네 가지의 악기  
 로 이야기하듯 음악을 표현하는 듯했는데 주고, 받고, 넘기  
 고, 땡기고, 감아내고, 다시 풀고, 하는 게 정말 예사롭지 않  
 았다. 경기도로 갔다가, 다시 전라도로 오고 마지막에는 영  
 남에 가서 놀자.....라는 식의 음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닐까?  
 사물놀이 특유의 주고받는 팽과리 소리에 신명 나는 순간  
 을 체험하였다.





이제 대망의 구장쟁이 채상설 장구 시간이 왔다. 앉아서 치기에도 어렵다는 장구를 옆구리에 척하고 메고 있다. 또 머리에는 상모를 쓰고..... 온 몸으로 표현하는 종합예술임이 틀림없다. 가락을 가지고 놓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 가락을 가지고 재미있게 놓고 있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다.

풍물굿판의 자근동 자근동 하는 그 전통가락에 자기 몸을 실어 한판 놀면서 즐기고 있는 채상설장구는 전통민속예술의 꽃중에 꽃이라 할 만하다. 객석에서 환호 소리가 터진다. 아~ 이게 바로 최의철이구나! 그의 장구를 누가 범접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어지는 판굿. 여러 치배들이 나와서 굿을 한다. 이리 돌고, 저리 돌며, 보기에도 황홀한 굿을 하고 있다. 아니 굿판을 벌이고 있다. 판굿에서 보여주는 화려한 춤과, 치배들의 훌륭한 연주에서 우리 전통예술의 소중함을 오늘 다시 느낀다.

#### 최의철 이바디예술단 대표

부산시 무형유산 부산고분도리걸림 장구예능보유자 후보, 부산시 무형유산 부산농악 장구 이수자, 동의대 산업문화대학원 음악치료학과 졸업, 사)부산국제민속예술협회 부회장, 사)부산구덕민속예술보존협회 이사, 사)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이사, 사)영남춤학회 상임이사



2시간 20분의 짧지 않은 시간을 악(樂), 가(歌), 무(舞)로 가득 채운 한판이었다. 장구 소리의 깊은 울림과 미세한 떨림으로 많은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준 이바디예술단의 정기연주회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애닦은 우리의 삶과, 자연의 순진하고 영원 무구한 그 모습을 담아내고자 하였고, 둥근 달 모양의 상모는 달을 사랑하는 우리 민족의 풍속을 표현했으며, 구장쟁이 채상설장구의 노련한 춤동작과 농익은 모양새는 소중한 귀한 것

을 확인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개인놀이 시간에 보여준 소고쟁이들의 춤, 신명, 해학, 웃음 그리고 화려한 자반뒤집기는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듯하다.

내년 이바디예술단의 정기연주회가 어떤 울림과 떨림으로 다가올지 벌써 기대된다. 이렇게 아름답고도 훌륭한 우리의 악·가·무가 언제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고 높은 완성도를 이루어 우리 후손들에게 잘 전승되기를 기대해본다.

글·사진\_이바디예술단



## 예술의 흔적, 원로 예술가들의 연륜과 혜안으로 지역 예술의 내일을 짚어 본다

‘예술의 흔적’ 행사는 2024년 11월에 스무 명의 원로 예술가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부산예술 산하의 협회 12개 중 9개 분야 원로 예술가들의 인터뷰를 영상으로 기록했다.

원로 예술가들의 오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한 창작 활동을 공유하고, 예술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창작 활동의 방향을 짚어 보기 위해 기획했다. 정체된 지역 예술의 현실을 뒤돌아보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했다. 원로들의 생생한 예술의 길을 기록으로 남기고, 후학들에 대한 바람도 들었다.

‘원로와의 대담’ 형식으로 영상에는 ‘급변하는 환경 속 예술가로서 가져야 할 마음’, ‘장르의 발전과 그에 대한 우려’, 그리고 ‘장르를 이끌어 나아갈 후학 예술가들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 총 3가지 질문에 대한 원로들의 연륜과 혜안을 담았다. 이번 2월호에 9분, 다음 3월호에 9분으로 나누어 실는다.

## 예술의 은택 1

### 건축 / 건축사 한병우

해운대 언덕위의 집, 범일동 더위드웨딩홀, 국민은행 대신동 지점, 수정빌딩 외 다수 설계. 현) 자유건축사 사무소 소장

건축설계사무소 자유건축사사무소를 1971년 개업하여 54년째 운영하고 있다. 예술가들은 대중화 되어야 하는데 건축 분야는 대중화가 되기가 좀 힘든 분야이다. 그래서 건축은 음악, 미술, 연극 등 예술 분야에 비해 대중화가 어렵고 느리다. 건축은 건축주의 주문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이고, 또 공공건물은 발주처에 직접 찾아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대중화가 쉽지 않고 상당히 늦다.

우리 인간은 다양한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 있다. 건축 설계하는 분들이 그 행동이나 사고를 모르면 설계가 참 힘들다. 음악가는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정서를 가지는가, 미술가는 그림을 그릴 때 화구를 어디에 두고 이젤을 어디에 두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설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후학들에게 완성도 높은 작품을 위해서 다양한 우리 인간 행동과 사고를 알 수 있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건축 설계를 위한 공부에 있어 정보화 사회의 IT기술을 활용해 수월하게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손쉽게 얻어진 정보들의 문제는 현장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젊은 설계자들이 인터넷에서 수집하여 설계에 적용한 것들이 현장에서 오류로 발견되기도 한다. 그래서 현장을 제대로 알고, 건축 설계의 충실한 기본 바탕 위에 최신 정보들을 활용해야 한다. 공부하는 건축가가 되어야 한다.



### 국악 / 국악정가 정인경

부산국악협회 시조분과장. 한얼정악연구소 대표. 중요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 이수자. 부산시조시인협회 회원. 전국시조경향대회 대통령상 수상. 부산예술상 수상. 부산문화상 수상. 새싹어린이시조문학상 수상. 최초 시조 창무극 개발 26회 공연(대표작: 동짓날 기나긴 밤을, 뒤편들 가려 깎여, 이화우 흘날릴 제 등). 저서) 시조창지도서, 시조집 삶은 가락을 타고 외

국악은 대중화가 지금 텅 되어 있다. 국악은 우리 민족 음악인데 젊은이들이 너무 모르고 있다. 그래서 공연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자주 알려야 되고, 원로들은 제자 교육과 양성을 많이 해야 한다. 대학에서 국악학과가 없어지고 학생이 줄어드는 등 참 어려운 길을 걷고 있다. 국악 장르는 배우는 기간도 굉장히 길고, 직업과 연계되기가 굉장히 힘들다. 학교마다 찾아다니면서 나라 찾듯이 우리가 민족혼을

찾자고 학생들을 설득 시켜가며 정말 어거지로 가르치고 있었는데 대학을 정작 졸업해도 직업으로 연결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마쳐도 취업은 어렵다. 국립국악원과 시립관현악단 국악관현악단에 한두 명씩 뽑고 나면 그만인 실정이다. 죄짓는 것 같아서 10년 전부터 제자를 가르치는 일도 끊었다. 국악 공부의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팠다.

지금은 세계화 시대이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았을 때가 가장 궁금하고 체험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전통문화일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의 민속 음악이다. 외국인들에게 우리 것을 알릴 기회는 많다.

국악은 나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요즘 대중가요 경연 프로그램에서 국악을 전공한 가수들이 장원을 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단전에서 깊은 소리가 나와야 만이 모든 장르의 노래를 다 소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국악의 대중화와 활성화를 위해서 무대 공연 기회가 많아야 한다. 젊은 국악인들을 길러 세계인들에게 보여줄 때 가장 아름답고, 할머니들의 공연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길러내서 우리 것을 알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아이들을 다듬어 보석으로 만들어 가는 건 무대 공연이 최선의 방법이다. 평생 국악을 해 온 분들도 무대에 서는 걸 늘 희망이고, 객석의 박수를 받는 큰 꿈을 품고 산다.

그 무대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닌, 우리 국민을 위한 것이다. 한 번 올라감으로써 또 한 번 다듬어지고 성장한다. 공연자들은 무대 대신 객석에 앉을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눈물도 나고 외로운 길을 걷는다.

나는 상도 많이 받았으나 늘 다른 국악인들에게 미안했다. 우리 국악 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와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



무용\_김정순

### 무용 / 발레 김정순

부산 경남발레협회장 역임. 부산무용협회회장 역임. 부산 국제무용제 운영위원장 역임. 부산시문화상수상자회 회장 역임. 현) 신라대학교 명예교수. 부산새싹발레단 예술감독. 부산유니온발레단 예술감독. 호두까기인형, 한여름밤의 꿈, 콩쥐팥쥐, 땡브르발레연구회 20주년 기념공연 <고집쟁이 딸>, 김정순발레50년 - 보은의 꽃 외 다수 활동

융복합시대를 맞아 발레 공연이 타 장르에 비해 표현성을 확장하고, 관객의 이해도가 높고, 신선하고 새로운 작품 접할 때가 있다. 그때는 아주 흐뭇한 마음으로 예술의 발전을 느낄 수 있다. 동시에 우려가 되는 것은 그 젊은 안무자들이 춤의 본질을 조금 잊고 지나치게 특색 있는 것만 찾다 보니 배가 산으로 가는 경향을 볼 때도 있다. 젊은 안무자들이 춤의 본질을 항상 마음에 담고 작품 활동을 해주기를 바란다.

8세 때부터 발레를 시작하여 취미로 예술로 평생을 같이 해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전공이 되었다. 어려운 길이 있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열심히 연습하고 공부하는 것이 예술의 길이다. 춤은 타 장르와 달리 인간의 신체를 도구로 해서 표현하는 예술이라는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 오로지 몸으로써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재차 강조하고

싫은 것은 너무 특색 있는 것에 빠져 춤의 본질을 잊으면 안 된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 문인 / 소설 강인수

1979년 단편소설 「밀물」(월간문학) 등단. 『밀물』(1981) 유림사. 장편 소설 11권, 중편소설 10편, 단편소설 88편 발표. 부산시 문화상, 한국해양문학상 대상, 오륙도 문학상. 부산문인협회회장 역임. 부경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역임. 현) 중국 북경대학 명예교수



문인 강인수

정년 후 창작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현대 사회는 예술하기 참 어려운 시대이다. 각자 소신대로 타고난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독서, 여행 등 체험을 많이 해야 좋은 작품을 쓸 수 있다.

최근 들어 여러 사람들이 직장을 퇴직하고 난 뒤에 60대 중반에 이르러 취미 활동으로 예술에 관계하면서 문학이 대중화되고 있다.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일면도 있지만 작품의 질이 상당히 저하되는 점은 우려된다. 취미생활을 넘어 작가로 등단해서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아마도 문인들 제법 많은 것 같다. 이분들은 좀 스스로 자숙하고 좋은 작품을 발표하고 활동해야 한다. 작품도 아닌 작품을 가지고 떠들고

다니는 행태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정년 후나 늦은 나이에 예술적 기질이 부족한 채로 작가 활동을 하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어느 수준에서 한계에 봉착될 수 있다. 문학에 대한 진정성이 있어야하고 나아가 문학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치도 있어야 한다.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후학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일단 이것이 나의 길이라고 선택한 사람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하여 작품으로서의 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의 낭비를 경계해야 한다. 가치 있는 작품은 많은 여행을 하고, 체험을 많이 가지고, 독서를 많이 해야 한다. 그러면 나름의 개성이 빛어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미술 / 서양화 강선보

부산혁미술동인전. 해운대미술가회, 부산회화제, 부산미술제, 연예인예술제. 부산미술대전, 남부국제현대미술제, 한국러시아중국교류전, 부산시립미술관 기획 영향과 반향전(개인전) 중국 텐진아카데미 기획 개인전. 현) 남부국제전, 혁미술전, 해미회전 고문, 구인전 회장



미술 강선보

경남 함양에서 태어났다. 중학교 때 미술 선생님에게서 그림 그리는 재능을 인정받았고, 경남 미술전에서 특선을 받았다. 부산대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디자인 담당 교사로 기계 디자인을 가르쳤고, 세계기능올림픽 대회 참가 학생들을 지도했다. 이후 1978년 제24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우리나라에서 유치했고, 여러 노력 끝에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대회를 치렀다. 이 대회에서 한국은 금메달 22개, 은메달 6개, 동메달 3개를 입상하여 1977년도에 이어 두 번째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교장이 되어 여유가 생기면서 소홀했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국제올림픽대회를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치른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지만, 그림을 다시 그리는 일은 참으로 어려웠다. 태양을 주제로 피약별 아래 농부의 땀을 담으려 김해 들판을 찾았고, 배를 타고 낙동강을 거슬러 오르기도 했다. 캔버스도 물감도 직접 만들었고, 햇볕과 풍년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손으로 문지르고, 휘발유로 불을 지르는 등의 기법으로 추상화를 그렸고, 국제전에 출품하여 고배를 마시기도 했다. 그 당시 부산에서 추상화는 낯설었고, 인정받지 못했다. 작품이 미술관에 소장되고, 이후 추상화에 몰입했고, 미술계의 인식도 달라졌다.

소련과 미국이 달에 우주선을 보낸 걸 계기로 '인간이 신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이미지를 작품화하였다. 스테인리스철판 캔버스를 우주로 하여 그 위에 파이프를 돌려 우주인의 산소 호흡기를 표현하고, 여러 소품을 붙여 신의 영역 침범을 상징하여 표현했다. 작가전에 출품하여 뜨거운 호평을 받았고, 부산 지역에 추상화의 저변이 형성되었다. 붓 대신 금속 도장에 사용되는 에어 콤프레샤에 물감을 넣고 뿌리니까 붓으로 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표현되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모티브로 하여 어머니의 영당이와 아이의 지문을 합해서 작품을 만들었다. 추상화 장르를 위해 비구상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들이 모여 불꽃 빛날 '혁'이라는 단체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지역을 넓혀 '남부현대미술제'를 만들었다.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의 작가들이 300여명 모였다. 지금도 운영되고 있고, 비구상 작품만 응모할 수 있다.

나이 90을 넘어서 회고전을 열었다. 지역의 젊은 미술학도들이 자부심과 희망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해주기 바란다. 화가들이 많아 작품 하나 사줄 사람도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것도 예술인의 숙명이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거기에는 미술적 요소가 필수이다. 모든 색깔이 미술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작품을 하고 또 하면 앞으로 좋은 빛이 비칠 것이다.



사진 정귀순

**사진 / 정귀순**

1991년부터 사진갤러리 운영. 제1회 부산사진대전 대상. 부산일보사진공모전 금상. 부산사진대전, 부산일보 국제 사진살롱 심사위원. 전국사진작가협회 사진 강좌, 대학 사진 강의. <골목풍경, 파인힐갤러리, 서울, 1986> 등 5회의 개인전. <부산사진의 재발견-징후로서의 사진전, 2011> 외 그룹전. 현) 한국사진작가협회 자문위원, 부산사진대전 초대작가, 부산여류사진가회 고문

직장 생활하면서 취미생활로 사진을 처음 접했다. 우리 세대는 흑백 필름 세대이다. 흑백 사진과 그 프로세스 과정에

서 굉장히 매력을 느꼈다. 그 이후에 개인 작업실을 오픈하고 사진인들과 정보 교류도 하였고, 공모전 출품도 지속적으로 했다. 사진에 입문한 세월이 40년 정도 흘렀다. 우리 세대는 필름 세대였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 자체가 쉽게 뛰어 들기가 힘들었다.

요즘은 AI시대로 사진에 있어서 카메라의 혁신으로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본 장르 중 하나이다. 그런데 쉽게 접한다는 것이 진정성의 깊이와 상통하지 않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요즘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같은 역기능 현상들이 노출되고 있다. 이 시점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진인들의 교육 문제이다. 사진협회 부산지회에서도 사진 교육을 하고 있고, 사진 전문 미술관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카메라와 휴대폰에 의해 사진이 일상화되고 있거나 사진작가협회에 등록 절차나 방법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현실이다. 특히 가입 인터뷰와 고액 입회비 등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 공모전의 공정성 담보도 과제이고, 심사는 디지털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고 언제나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젊은 사진 인구는 많은데 비해서 기존 사진협회 등에서 활동하지 않고 있다. 이제 젊은 그들이 동참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그들과 같이 전시하고 공감하는 프로젝트로 공유해야 한다. 사진이라는 공유 매개체로 연결되어 원로와 젊은 후학들이 같이하는 활동 공간을 만들어 가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사진의 기능인 기록성과 예술성을 활용하여 일반화하고 대중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던 사회의 어떤 비판적인 안목을 가지는 상관이 없이 나에게 사진이란 무엇인가, 나는 왜 사진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주기 바란다.

## 연극/연출 이선규

부산문화재단 심사위원, 평가위원. 밀양공연예술제, 가마골소극장 젊은연출가전 심사위원. 1995~현재 부산창작극 연구회 대표(공동대표 김문홍), 현) 부산시립극단 운영위원, 부산희곡작가협의회, 부산소극장협의회 자문위원. 한국연극 협회 감사 부두연극단, 액터스소극장, 창작극연구회 대표

부산의 소극장 연극 운동 1세대이다. 1984년 중앙동에 '부두 창고 극장'이라는 소극장을 만들었고, 이후 네 개의 극장을 운영했다. 지금은 남천동에 '액터스 소극장'과 '극단 부두 연극단' 대표와 연출을 맡고 있다. 40년 동안 많은 작품을 연출했고, 후배들을 키워왔다. 극단에서 영화 배우들을 많이 배출하기도 했다. 지금도 극장에서 연출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

시대가 아무리 급변하더라도 예술가는 자기 신념과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금 연극 장르가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연극은 특유의 인간 정신을 몸으로 표현하는 예술이기 때문에 좀 더 관객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창조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AI에 너무 의존할 필요는 없다. AI를 활용하여 빛과 음악, 음향 같은 첨단 기능들을 응용하여



연극\_이선규

관객들에게 효과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다. 창조 작업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AI 시대에서도 우리가 주도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연극이 영화와 뮤지컬 장르들에 가려져 힘들어하고 있다. 그러나 연극은 특유의 관객과 직접 소통하고 만나는 장르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후배들이 연극이라는 장르와 자기 작업에 대한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굳건하게 해 나가면 위기의 시간이 지나고 기회의 시기가 오지않을까 생각한다. 앞으로 어찌든 사람들이 AI를 비롯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외로워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는 아마 연극이 다시 한 번 번성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그때를 대비해서 후배들이 열심히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연예 / 연주 홍기표**

초대 부산시 서구 구의원.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부산지회 사무국장. 녹음, 레코딩 제작사(1958년) 작사가

1958년도 18살 때 가수 지망생으로 음반 제작소 도미도 레코드 회사에 입사했다. 작곡가 겸 가수였던 한복남 씨가 사장이었다. 이후 가수 대신 레코드 음반 만드는 기술을 배웠고, 연예계 발을 들이게 되었다. 그 후 작사도 하고 때로는



연예\_홍기표

작곡도 했다. 또 음악학원도 운영하고, 녹음실도 부산 최초로 열었다.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부산지회 사무국장직을 25년간 역임을 했다. 지금은 다 접고 소일거리로 조그마한 노래 교실을 하나 만들어 70세 이상 노인들 대상으로 옛날 이야기도 하면서 옛날 노래를 가르쳐주고 있다.

예술인들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개인의 힘으로 예술인들이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예술인들은 시대정신을 같이 해오면서 애국을 해왔다. 일제 강점기 식민지 백성의 애환을 노래했고, 6.25 한국 전쟁의 아픔을 노래로 같이 해 왔기 때문이다. 시대의 애환들을 노래로 위로 받고, 희망을 나누었다. 애국의 길을 걸었던 예술을 정부가 인정하고 전폭적인 지원으로 활성화 되어야 한다. 현실은 인식 부족으로 지원이 적어 안타까울 뿐이다.

젊은 연예인들이 예술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예술로 사회에 기여하는 사명감도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예술로 출세하고 돈 버는 데 지나치게 치우쳐 있어 안타깝다. 자기 재주를 마음껏 발휘해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정도의 실력을 발휘하면 출세한 것이다. 그 뒤에는 경제적인 게 해결되고 자기만의 인기를 얻을 수 있다. 인기인이 되기 전에 우선 착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근본을 지켜주기 바란다. 젊은이들은 꿈이 있어 참 좋다. 그 꿈을 살려 열심히 하면 빛이 보일 것이라는 희망을 강조하고 싶다.

**음악 / 피아니스트 고정화**

부산문화회관 운영위원.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위원. 독주회 16회 및 100여 회의 연주. 한국음악협회 한국음악상 본상, 제24회 올해의 최우수예술인상 음악부문수상. (현) 부산교육대학교 명예교수, 한국피아노학회 상임교문,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명예회장



부산음악협회 14대, 15대 회장을 역임했다. 현대에 와서 새로운 기술이 발달 되면서 예술 분야에도 기계 음악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기는 하다. 예술인은 예술의 본질을 통해서 자기만의 철학과 메시지를 전달해서 인간과 사회에 울림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희 부친 고태국 선생님은 “의사는 매스로 사람의 육신을 치료하지만, 음악가는 음악으로 사람의 마음을 치료해야 된다.”고 음악적 신념과 교육적 철학을 보여주었다. 여러 제자들이 고태국 선생님의 투철한 예술적 사명감과 양심을 따랐다.

AI 시대의 기계 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 해도 음악이 주는 진정한 감동과 공감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 급변하는 시대의 음악 예술인들은 음악 본질에 입각한 창작 활동이나 연주를 통해서 청중들과 사회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각광 받고 있는 젊은 음악가 조성진과 임윤찬은 음악의 본고장인 유럽과 미국에서도 인정받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발돋움하고 있다. 그들은 서로 연주 스타일도 다르고 각기 다른 음색을 갖고 있다. 그 탁월한 테크닉과 비범한 재능으로 그들만이 표현할 수 있는 음악 세계를 구축하였고, 그것을 우리가 음악성이라고 한다. 그 특별

한 음악성은 세계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울리게 하고 감동을 주고 있다.

젊은 음악가들은 자기가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 가야 한다. 먼저 테크닉을 습득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그 음악을 만드는 기술자가 아닌 자기만의 특별한 영감을 가진 음악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를 이해하고, 또 독서나 인문학적인 소양도 습득을 해야 한다.

피아니스트 임윤찬은 단테의 신곡을 10번이나 읽었다고 한다. 그의 스승인 미국의 리셀 쇼만 교수는 자기 제자들에게 레슨 받으러 오기 전에 그날 신문에 난 사설을 읽고 오라고 했고, 또 자기가 읽은 책의 독후감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만 그날 레슨을 해주었다고 한다. 그 교수는 음악을 공부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인문학적인 소양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고 한다.

여러분 모두가 명성을 가진 음악가가 되라는 것은 아니다. 음악 연주는 표면적으로는 화려한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구도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삶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멈추지 말고 노력하기 바란다. 노력하는 음악은 자신만의 것을 넘어 후대 음악인들에게도 영감으로 돌아올 것이다. 음악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 예술가들의 열정을 응원한다.

기록 정리·편집실



사진아카데미 심화반 전시회  
‘COLOR/TIME/SPACE  
아름다움에 대하여’

2025. 1. 7. ~ 1. 10. 부산예술회관 3층 전시실

부산예술회관 예술아카데미 중 사진아카데미(심화반) 수강생들의 전시회가 나흘 간 진행됐다. 심화반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작품이다. 처음에는 나만을 위한 작은 사진 공부로 시작하게 된다. 심화 과정은 사진으로 틀에 박힌 인식과 테두리에서 벗어나게 도와줬다. 줄탁동시(猝感同時)와 같이 밖에서 알껍질을 쫓아주니 새로운 세상에 태어나는 기분과 사진가가 될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를 품고 각자의 카메라를 들었다.

전시된 사진의 대상은 다양하다. 나무 몇 그루, 그 나무들을 한껏 품은 산, 그리고 그 산 속 어딘가에서 찍혔을 작은 새, 이 모든 것들의 위에서 내려다보는 하늘과 그 하늘만큼 광활하게 푸르른 바다까지. 수강생들은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거대한 자연을 작은 사진 안에 훌륭히 담아냈다. 자연뿐만이 아니다. 푸른 바다 옆 혼자 해변가를 거니는 사람, 홀로 자전거 탄 사람, 여럿이 모임을 한 사람들 등 일부는 인물에도 초점을 맞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방방곡곡의 건물 및 사물도 엿볼 수 있다.

사진을 찍은 이가 다양하듯이, 사진에 담긴 인물도 또한 다양하다. 백발 노인부터 그저 천진난만하기만 한 아이까지. 이는 누구나 사진작가가 될 수 있듯이, 피사체 또한 누구나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것만 같다.

수강생이자, 어엿한 작가라 할 수 있는 심화반 회원들의 사진은 하나같이 자유롭다. 사진 주제나 방식, 장소 등 모두 자유롭다. 이는 이들이 사진을 즐기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회원들의 편안한 미소만 보더라도 그들이 사진을 찍을 때 얼마나 자유로웠는가 가늠할 수 있다.

사진 이미지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텍스트이며, 이렇게 이루어진 미디어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다양한 주제를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이야기한다. 또한 자신의 사진표현을 위한 열정은 공간을 넘나들고, 그 열정은 모두에게 귀감이 되며 세상으로 나아가게 한다. 이로써, 자유로운 사진 여행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들은 이번 전시회를 열며 이미지와 창의성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도 했다. “사물이 가진 일반적인 상식을 버리고 사물의 내부 잠재성을 드러내며, 그를 통해 대중의 통념을 뒤

흔든다. 이미지와 미디어의 구성과 의미에도 부합되게 결과도 만들고 하나의 사물이 가진 현실태와 잠재태를 오래도록 숙고하고 연마하는 결과에서 창출된다.”라고 정의하며 그들은 사진 생활의 큰 걸음을 내디뎠다.

문의\_051)631-4111 / 편집실, 사진 제공\_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지회



부산시민회관

# <2025 부산시민회관 신년음악회>

2025. 1. 17. 오후 7시 30분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2025년 푸른 뱀의 해, 희망을 노래하다.

2025년 신년을 맞이하는 신년음악회가 1월 17일 부산시민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신년음악회는 예술감독 이동훈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흥겨운 무대로 펼쳐졌다. 아울러 정희정 아나운서의 진행하에, 국악계의 이단아로 불리는 경기민요 소리꾼 이희문과 늬늬, 한국 포크의 대가 정태춘, 정가 보컬리스트 하윤주, 거문고 주자 이대하, 그리고 연희양상블 궁궁, 세계 최초의 택견 비보이 트레블러크루가 함께 출연해서 무대 위에서 흥을 돋웠다. 국악단과 비보이, 한국 포크, 그리고 비보이가 한 무대에 오른다?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관객에겐 공연이 조화롭지 않으면 어쩌나 싶은 걱정과 새로운 공연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했을 것이다. 하지만 공연 출연진은 이러한 관객들의 걱정은 지워버리면서, 동시에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무대를 보여줬다. 마치 여러 나라에서 한곳에 모인 음식 재료들이 함께 어우러져 깊은 풍미를 내는 훌륭한 요리가 되는 것과 같았다.



국악관현악단의 무대는 아침의 시간을 열 듯 새  
 해의 시간을 열어주는 음악이었다. 그와 동시에,  
 지나간 시간을 돌아볼 수 있는 차분함도 존재했  
 다. 그리고 국악적 특색이 녹아있는 자연스러운  
 음률로 노래하는 정태춘, 그의 노래는 서정성과  
 사회성을 모두 아우르는 가사로 무대의 수준을 더  
 욱 높였다.



이동훈 지휘자

소리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소리꾼 이희문, 그는  
 전통이란 틀에 갇히지 않고 고민과 도전을 두려워  
 하지 않은 덕에, 대체 불가한 국악계의 이단아가 된 것이다. 이번 무대를 통해 그가 왜 이단아인  
 지 확실히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경기소리를 알리기 위해서 양진수와 조원석이 똘똘으  
 로 출연했다. 이들 셋은 형제라고 믿어도 될 만큼 죽이 잘 맞는 합을 보였다.

방송에도 출연하며 인지도를 높인 하윤주는 특유의 고전적인 목소리로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  
 고, 현대적인 감성까지 아우르는 모습을 보여줬다. 우리의 전통을 지키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  
 시하는 무대였다. 이대하의 손길 아래 연주된 거문고의 아름답고 현란한 선율은 현대 음악에선  
 접하기 힘든 풍부한 음향을 전해줬다. 왜 그녀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수석인지 여실히 보  
 여준 무대였다.

연희양상블 궁궁은 궁궁이란 의미에 걸맞게 사물놀이의 무궁무진한 긍정적 에너지를 선보였  
 다. 다양한 연령의 멤버로 모인 궁궁이지만, 모두가 완숙한 퍼포먼스로 신명 나는 무대를 보여  
 줬다. 국악과 택견, 마살 아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접목해 오고 있는 래블러 크루는 무대에서 가  
 장 역동적인 움직임을 선보였다. 역동성과 함께 우아함까지 엿볼 수 있는 눈과 귀가 모두 즐거  
 운 무대였다.

오늘날 K-국악이라 불리는 한국의 전통음악은 여러 장르와 만나며 그 위력을 떨치고 있다. 우  
 리는 이번 공연에서 그 위력을 몸소 느껴볼 수 있었다. 대중가요와의 만남을 통해 국악의 또 다  
 른 면모를 발견하면서 축제의 장을 펼쳐 새해의 다짐을 더욱 굳게 다져보자는 의미가 담긴 무  
 대였다.

문의\_051)607-6000 / 편집실, 사진 제공\_부산시민회관

# 2024국립해양박물관 기획전시 **항해와 세계** **경도 측정법과 항해 기술의 발전사,** **과학자들과 항해사들의 도전과 성과를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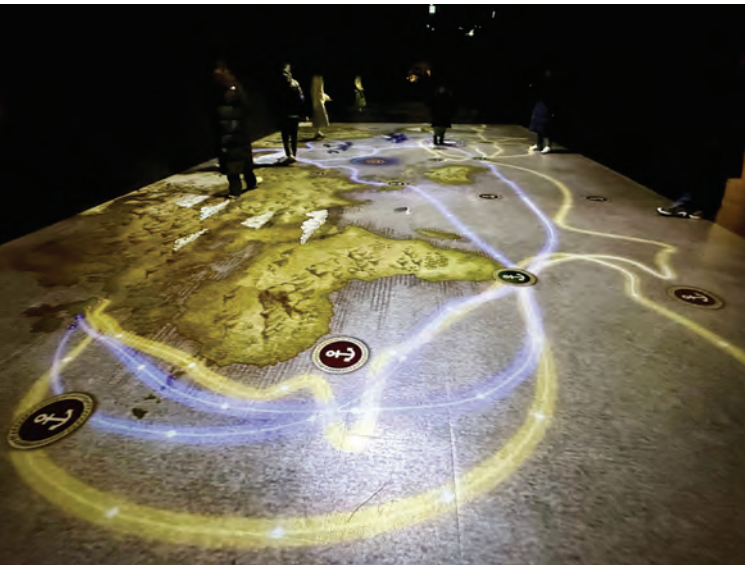
2024. 12. 3 ~ 25. 3. 2 국립해양박물관 기획전시실

국립해양박물관에서 항해 기술과 과학의 발전상을 주제로 '항해와 세계'를 기획 전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3월 2일까지 국립해양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경도를 측정하는 방법의 발전 과정과 중요한 발견들을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먼 옛날부터 위도는 별을 보고 쉽게 측정하였지만, 경도를 정확히 알아내는 어려운 일이었다. 정확한 경도 측정법을 찾는 과정에서 항해 기술과 과학이 크게 발전하였다.

15세기부터 유럽인들이 신항로를 개척하고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대항해시대가 열렸다. 그 과정에서 여러 나라들

은 정확한 경도 측정법을 찾기 위해 경쟁했다. 이후 18세기에 이르러 정확한 경도 측정이 가능해지면서 항해는 안전해졌고, 활발한 무역과 세계지도가 만들어졌다. 이 전시회는 경도 측정 방법의 발전 과정과 세계사에 미친 영향을 알 수 있고, 당시 과학자들과 항해사들이 겪은 도전과 성과를 만날 수 있다.

전시회는 4부로 나누어 시간 흐름에 따라 경도 측정법과 항해술의 발달 과정을 알아볼 수 있도록 배치하고 있다. 1부 항해의 문제 - 경도를 모른 채 항해하다. 2부 경도의 발견 -



경도 측정법을 알아낸다. 3부 두번째 도전 - 해상시계를 시험하다. 4부 문제의 해결 - 경도를 알고 항해하다.

**1부**에서는 18세기까지 경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방법이 없어 위도에만 의존한 상황을 알 수 있다. 항해사들이 태양이나 별을 이용해 위도는 계산할 수 있었지만, 경도는 날씨, 조류, 바람 등을 고려했으나 오차 범위는 1~200km 정도로 컸다. 오차로 인해 항해 날짜가 계획보다 길었고, 식량부족, 질병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

**2부**는 경도를 측정할 수 없어 일어나는 해상사고를 겪으면서 유럽의 해양강국들은 경도 측정법을 알아내기 위해 보상을 걸기도 하고,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같은 연구 시설을 세워 경도 측정 연구를 하였다. 천체 움직임으로 시간을 측정하려 했으나 높은 천문학적 지식이 요구되어 쉽지 않았다. 숭한 노력 끝에 영국의 시계 제작자 존 해리슨이 경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양시계'를 발명하였고, 배에서 정확한 경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해양강국이 되었다.

**3부**는 18세기 영국 탐험가이자 항해사 제임스 쿡이 해상시계를 실제 항해에 성공적으로 사용하여 세계 항해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경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해상시계는 항해사의 필수 도구가 되었고, 전 세계 지도가 이전보다 훨씬 정밀하게 그려질 수 있었다.

**4부**는 당시 해상시계를 빠른 시간 내에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이후 여러 연구자들이 해양 시계의 원리를 토대로 하여 시계구조를 단순화하고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했다. 19세기 초부터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해상 시계인 크로노미터가 생산되기 시작했다. 해군과 일반 무역선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항해의 정확성과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경도와 시간을 통일된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전시는 해도첩, 항해용 나침반, 경도법, 최초의 해양시계 H-1(영국 그리니치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복제품), 제임스 쿡 선장의 항해기와 초상화, 패닝턴의 크로노미터, 육분의 등 경도 측정과 항해술의 발달 과정을 알 수 있는 기계들과 기록물들을 시대순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시를 통해 경도 측정과 항해술이 과학과 함께 발달해 온 과정을 볼 수 있고, 나아가 세계사의 흐름을 알 수 있다.

문의\_051)309-1900 / 편집실, 사진\_김재곤

국립부산국악원

2025년 국악극

# 낮숨하나 밤숨하나 공연

1. 16., 1. 24. 19:30 / 1. 17., 1.25 11:00, 15:0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국립부산국악원은 작년 8월에 이어 올해 1월 총 6회에 걸쳐 한국 전통 음악과 연희를 나누는 국악극 <낮숨 하나, 밤숨 하나>를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에서 공연하였다.

작년 초연으로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해당 작품은 부산 동래읍에서 태어나 조선시대 천재 과학자로 알려져 있는 장영실(1390~?)의 발명품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장영실의 발명품 중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해시계(양부일구), 물시계(자격루)를 소재로, 쌀알에 숨겨진 '낮숨'과 '밤숨'의 비밀을 찾아 떠나는 주인공(일월)과 바다 동물들(예, 해파리, 불가사리, 문어 등)의 여정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은 장영실을 직접 서사화하지 않고 그의 손녀를 주인공으로 하여 전체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판소리, 경기민요, 비나리, 별달거리(소리), 민요 등 다양한 전통 성악을 기본으로, 연희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종목들을 짜임새 있게 마련하여 어린이들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숨을 후후 불어 햇빛을 밝히고, 달빛을 밝히던 시절, 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낮숨과 밤숨을 불어야 했던 힘든 시절, 지혜로운 왕의 뜻으로 부산 동래 출신의 똑똑한 과학자는 햇빛 밝히는 낮숨과 달빛 밝히는 밤숨을 만들어 낸다. 낮 시계와 밤 시계였다. 그러나 착한 왕이 죽고 심술궂은 왕이 낮 시계와 밤 시계를 없애고, 다시 사람들은 하루 종일 낮숨과 밤숨을 불어야 하는 옛날로 돌아간다.

극 중 과학자는 몰래 '낮숨 하나 밤숨 하나'를 만드는 비밀을 쌀알에 담아 손녀 일월에게 건네주는데, 손녀 일월은 비밀의 쌀알을 바다에 빠뜨리고 그걸 찾으려 가는 여정이 시작된다. 바다 동물들을 만나 쌀알의 비밀을 풀어가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일월은 '낮숨 하나 밤숨 하나'를 다시 만들어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 관객들은 숨을 크게 후하고 내신다. 얼썌!

국립부산국악원의 이번 공연 기획은, 자칫 지루할 법한 역사를 다채롭고 경쾌한 전통 국악놀이로 풀어내면서 국악과 역사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해 준 것이다.

문의\_051)811-0072 / 편집실, 사진 제공\_국립부산국악원



KT&G 상상마당 부산

**프란츠 카프카**

**사후 100주년 기념**

**<GIFT Vol. 3: 프란츠 카프카>**

**전시**

2024. 12. 7. ~ 2025. 1. 12. KT&G 상상마당 부산 갤러리

KT&G 상상마당 부산 갤러리에서는 프란츠 카프카의 사후 100주년을 기념해 <GIFT Vol.3: 프란츠 카프카>를 지난해 12월 7일부터 1월 12일까지 무료로 개최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프란츠 카프카가 그린 드로잉 70여 점을 비롯해 국내 현대 미술작가 노마, 박소진, 버터컵이 카프카의 내면 세계를 자신만의 조형 언어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눈을 즐겁게 만들었다.

FRANZ  
KAFKA

**박소진 대표작\_죽교동**

박소진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도시의 야경을 그려 사소하지만 고요하고, 평온한 도시의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냈다. 도심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내면의 평화를 표현한 작품으로, 위로와 해방감을 전하고 있다.





〈GIFT Vol.3: 프란츠 카프카〉 전시는 다섯 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관람객들이 카프카의 소개를 시작으로 그의 집필실이 재현된 공간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마치 한 권의 책처럼 경험할 수 있게 꾸며졌다. 해당 전시에서 흥미로웠던 부분 중 하나는, 전시장 내부에 주말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정각마다 5분간 인공 눈이 내리는 이벤트가 진행되기도 하면서 프라하의 밤을 연상시키는 몽환적인 분위기를 끌어냈다는 점이다.

또한, 전시와 함께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었던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별미였다. 먼저, 카프카의 집필실을 재현한 공간에서는 작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글쓰기를 체험했다. 변신을 주제로 한 포토존은 “내가 바퀴벌레로 변한다면?”이라는 MBTI 유형별 반응을 소개하는 등 흥미를 끌어냈다. 그리고 부산 로컬 책방 [카프카의 밤]과 협업한 북토크와 카프카의 드로잉을 활용한 블루 프린트 체험도 진행되었다.

#### 노마 대표작\_안시호수

노마는 본인만의 색채와 이야기를 하나의 화폭 위에서 풍경과 사람, 피사체들의 관계를 따뜻함으로 풀어냈다. 사소한 순간들 속에서 발견되는 온기와 감성적인 울림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 버터컵 대표작\_환상이 속삭이는 시간

버터컵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달콤하고 황홀한 상상이 가득한 환상을 그려냈다. 숨 가쁜 현실에서 멀어진 다채로운 환상의 감각을 소환해 자유로움을 선사한 작품이다.

한때 화가를 꿈꾸기도 했다던 카프카의 드로잉들은 거칠고 날카로웠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바라보게 만드는 신비로운 깊이감 또한 느껴졌다.

이번 전시는 카프카에 대한 단순 기록과 회고를 넘었다. 그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의 생애와 문학 세계를 다각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카프카를 책 밖으로 불러내려 한 다채로운 시도는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다. 더불어 우리 모두 내 안의 카프카를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었다.

문의\_070-8893-0892 / 편집실  
사진 제공\_KT&G 상상마당 부산 갤러리



# 부산근현대역사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억상자 전시

2024. 12. 17. ~ 2025. 2. 23. 부산근현대역사관

부산근현대역사관은 작년 12월 17일부터 역사관 본관 1층에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억상자’ 순회전을 진행 중이다. 올해 2월 23일까지 진행될 이번 전시는 독립운동과 관련이 깊은 지역에서 개최하는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의 순회전시로,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지니는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2022년 건립되어, 임시정부 관련 자료 수집과 학술연구, 교육 프로그램 등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역사와 가치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 재정의 조력자들

안희제와 김갑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재정을 지원한 독립운동가입니다. 두 사람은 대동청년단의 단원으로 활동하며 임시정부와 협력해 독립운동을 이끔었습니다. 대동청년단은 보성중학교 교장인 박중화가 국권 회복을 목적으로 만든 단체로, 많은 부산 출신 독립운동가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안희제**

1895. 8. 4. - 1943. 8. 3.

경남 의령에서 태어난 안희제는 부산에서 백산상회를 설립해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한 독립운동가입니다. 백산상회는 물건을 사고파는 상업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자금은 비밀리에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로 전달되어 항일운동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안희제의 활동은 부산과 임시정부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독립운동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돕는 재정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김갑**

1893. 1. 7. - 1933. 3. 14.

부산에서 태어난 김갑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재무부장을 맡아 독립운동 자금을 관리했습니다. 3·1운동 후 중국으로 망명하여 임시정부에서 경상도 대표로 활동하며 임시정부의 초기 조직을 돕는 데 힘썼습니다. 이후 김갑은 임시정부 재정 책임자로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고 배분해 임시정부가 안정적으로 운영됐고, 국내외 상하이를 연결하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유한**

1910. 2. 21. - 1996. 6. 15.

한유한은 부산 출신의 독립운동가로,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이자 예술가 문필가 음악가 통해 독립운동에 힘썼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따라 상하이 한양학에서 '한유한'으로 바꿨는데, 이는 '한국을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한유한은 상하이 신화예술대학교에서 음악을 공부하며 독립운동의 새로운 길로 나아갔습니다. 1939년에 만주국 7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한국청년간 예술조장으로 임명되어 다양한 곡을 작곡하였습니다. 이후 임시정부 한국 (임태간 행진곡)을 작곡하고, 우리 전통 민요인 아리랑을 바탕으로 한곡 만들어 공연했습니다. 한유한의 음악은 사람들에게 독립의 희망을 주고 한 나라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문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억상자’ 전시는 1, 2부로 나누어져 있다. 1부에서는 임시정부 행정부 수반, 임시정부의 주요 활동, 상하이에서 충칭까지 이어진 임시정부 이동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다. 2부에서는 1945년 복국과 건국, 임시정부의 환국과 전국 환영대회 모습, 부산 독립운동가의 활동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2부의 마지막, ‘부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코너에서는 부산 인물을 중심으로 임시정부의 역사를 되짚어 볼 수 있다.

관람객을 배려한 전시 기획도 눈에 띈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간략하게 제작된 어린이용 체험지를 함께 배부해 전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와 더불어 역사관 상설전시실과 이번 전시를 연계해 독립운동과 광복에 대한 관람객의 이해를 도왔다.

김기용 부산근현대역사관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과 공동으로 전시를 개최하게 돼 뜻깊다”라며, 이번 전시가 임시정부의 역사와 독립운동가의 헌신을 기억에 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기회에 역사관 제1상설전시실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산의 독립운동가들’ 코너도 꼭 관람해” 부산의 3.1운동과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_051)607-8042 / 편집실, 사진 제공\_부산근현대역사관



KF아세안문화원

# 거리의 책 서 전시

2024. 12. 13. ~ 2025. 3. 14. KF아세안문화원

KF아세안문화원에서 거리의 서책 전시회가 진행 중이다. 광주와 서울에 이어 부산에서 세 번째로 개최되는 '거리의 서책' 전시에서는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참여국가인 아세안 3개국(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과 한국 현대미술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 스펙트럼을 공동의 주제로 묶어낸다. 작가들은 개인의 미시적 경험과 관찰로부터 출발, 사회 속에서 발현되는 독특한 현상을 예술 작업으로 발언한다. 또한, 다양한 매체와 기법을 복합적으로 시도한 동시대적 접근방식으로 각기 다른 사회가 동시에 마주한 사회문화적 이슈를 조망하기도 한다.



「프로젝트: 임시적 마킹」은 줄케플리 자이스의 대표작 중 하나로, 사회적 공간과 개인의 기억, 그리고 두 가지 사이의 상호작용을 탐구한다. 이 작품은 일시적으로 비영구적인 표식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하거나 사라지는지에 대한 고찰을 담고 있다. 자이스의 고향이기도 한 말레이시아 페락주의 도시 틀룩인탄에 설치했던 프로젝트의 연장선 상으로, 도시의 과거를 대변하는 존재인 메나라 콘동 사탑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다원적 접근법을 장려하며 지리학과 심리학을 융합하여 전통적인 체계를 넘어선 지정학적 이해를 추구한다. 「Pre: 임시적 마킹」은 임시적 마킹 프로젝트에 뮤지올로지와 아카이빙 개념을 적용하여 동 프로젝트의 의미를 확장한다. 작가는 여러 청사진을 사용하여 현재의 작품을 형성했으며, 이를 통해 작품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해초 이야기」는 하도해녀합창단의 제주아리랑 노래를 담은 것이다. 제주 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해녀 공동체 중 하나인 하도는 일제 강점기 동안 제주해녀항일운동이 일어난 곳이다. 제주는 낭만적 관광지로 널리 알려졌지만, 식민과 전쟁의 흔적이 많은 곳으로, 오키나와나 괌처럼 관광산업과 군대 주둔의 양면성이 존재한다. 이들의 노래는 평범한 일상에서 출발하지만 섬을 위로하는 노래로 들어도 좋을 것이다. 이끼바위쿠르르는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콜렉티브로, 식물과 인류, 문명과 자연 현상, 식민주의와 생태의 다면적인 연결 고리를 탐구한다. 이끼바위와 의성어 쿠르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그룹명이 말하듯, 작가들의 존재 양식과 실천법은 공기와 흙의 경계면에 존재하는 이끼처럼 자신의 주변 환경에 적응하며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가치 있는 일이라면」은 아비 펠릭스의 추상화이다. 아비 펠릭스의 추상 시리즈는 감각적인 색채와 독창적인 기하학적 패턴의 조화로 잘 알려져 있다. 그녀의 작품은 내면의 감

정과 경험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필리핀의 풍부한 문화적 전통과 현대성을 융합시켜 작품에 담아낸다. 그녀는 명상을 기반으로 매일 몇 시간씩 호흡과 자세, 내면에 주의를 기울이며 기하학적 선을 신중하게 그리는 과정을 통해 작품을 창조한다. 이 과정은 외부 환경의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자유로움을 유지하려는 그녀의 태도와 저항의 의지를 반영한다. 외에도 펠릭스는 필리핀의 문화적 정체성과 역사적 맥락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이를 현대적인 예술적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이외에도 짜크라왈 닐탐롱Jakrawal Nilthamrong의 「리좀 Rhizome」, 아자니 아룸팍Adjani Arumpac의 「달콤한 전쟁 War is a tender Thing」, 이우성의 「핫 팻 Hot Pot」 등 다양한 작품이 전시 중이다. 작가들은 공통적으로 다문화주의, 역사·문화적 혼동과 정체성, 급격한 경제성장과 도시화의 부산물에 대한 관심, 인간성을 규정하는 존재론적 질문을 쟁점화한다. 이들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개된 문화적 변동과 해체 과정을 경험해 온 세대이다. 그러기에 각국의 사회, 정치, 역사와 같은 큰 관심에서 떨어져 나온 개별적 주제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시각 언어를 보여준다.

문의\_051)775-2000 / 편집실, 사진 제공\_KF아세안문화원

- 1 줄케플리 자이스(Zulkefli Jais Pre) 「Pre: 임시적 마킹(Temporary Marking)」, 혼합 매체, 가변 크기, 2024
- 2 이끼바위쿠르르(ikkibawiKrr) 「해초 이야기」, 싱글 채널 비디오, HD, 사운드, 5분 22초, 아크릴페인트, 본드 등, 가변 크기, 2022
- 3 아비 펠릭스(Avie Felix) 「가치있는 일이라면(For What It's Worth)」, 아크릴, 비정형 캔버스, 오일, 24×24cm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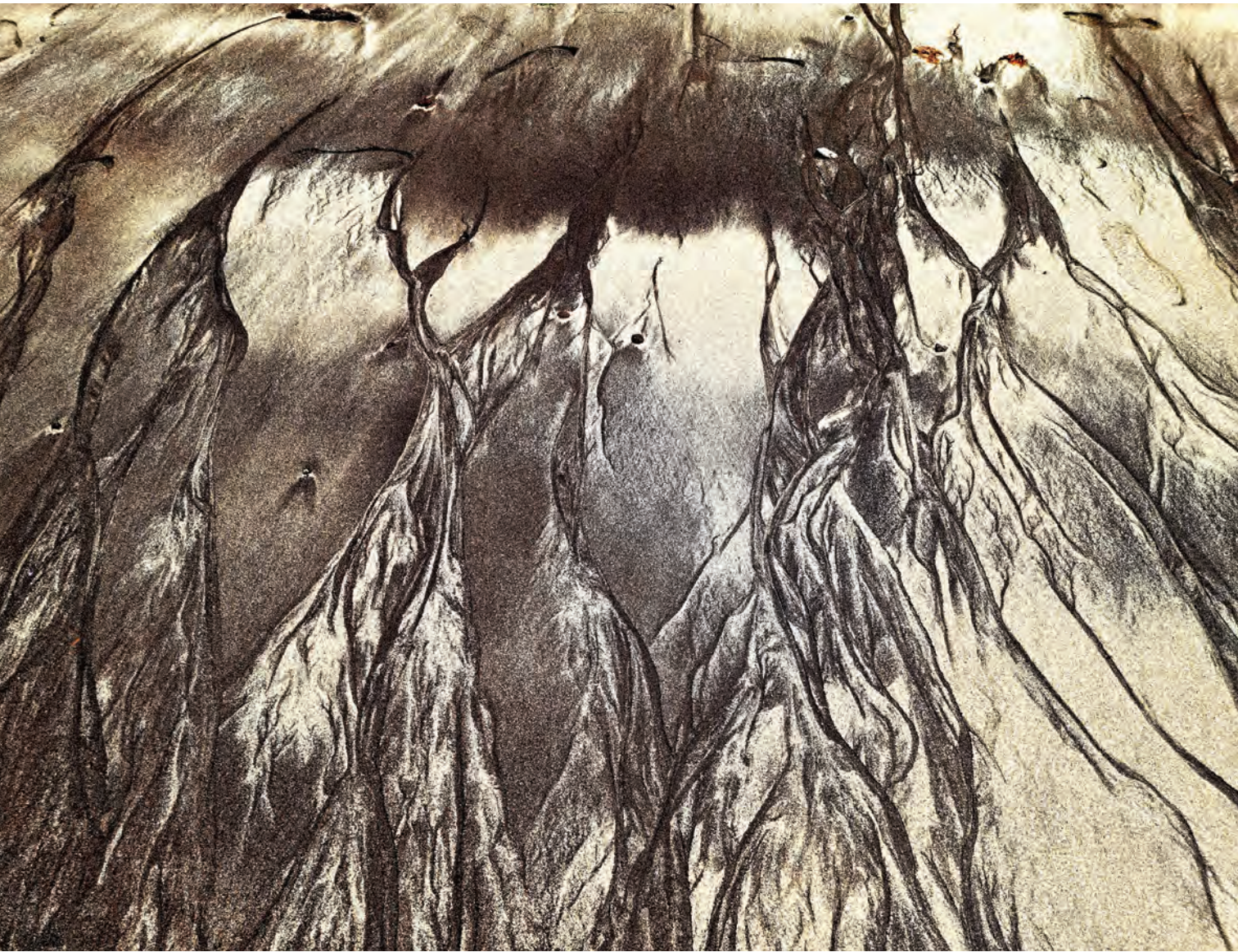
# Beach Story

만작이는 검은 모래가 특징인  
제주도 삼양 검은모래 해변  
검은 모래와 썰물이 만드는 형상에서  
Beach Story를 읽는다.

한 알의 검은 모래가  
모여 만든 형상을 찾는 재미는 무아지경

자연의 생명력을 온전히 담아내기는 어려우나  
떨림을 경험하는 순간은 즐거움다

글 사진 김효숙 부산사진작가협회 회원





## 겨울, 그 소요한 계절

태양이 늦다. 사람도 덩달아 늦어진다. 사방이 희붐해질 때까지 현관문이 열리는 집은 별반 없다. 세상 바지런한 동네 사람들도 벽에 걸린 시계보다는 어둠을 걷어내는 태양의 손에 생체 리듬을 맞추는 계절이 겨울이다. 한껏 냉랭해진 날씨를 핑계 대며 나도 녹작지근한 이불 속 게으름을 누릴 만치 누리고서야 부스스 몸을 일으킨다.

간밤은 화목난로의 불길을 추스르느라 자정 너머까지 네 발 동물들에게 붙잡혀있었다. 단열 기능이 떨어지는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반려묘들의 공간으로 꾸며둔 까닭이었다. 덕분에 털의 난장에서 해방되기는 했지만, 여름은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줄수를 넘긴 어르신까지 있으니, 얼어 죽게 생긴 날, 얼어 죽게 내버려둘 수 없는 일이라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어야 한다.



빼꼼, 현관 너머 바깥 기운을 엿탐한다. 코끝이 썩하다. 무조건 춥다는 말이다. 그리잖아도 추위에 약한데 올해 들어 부쩍 추위를 탄다. 늙어지는 현상 중 하나려니 하지만 추위도 너무 춥다. 게다가 예보되는 수은주의 숫자들이 체감 추위를 배가시킨다. 문밖은 위험할지니, 너른 들녘도, 마을 안길도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다.

그때다. 고요를 무찌르며 뒷집 어르신께서 마당으로 들어서신다. 부지런함이 몸에 밴 분이랴 새벽같이 불을 밝힌 채 하루를 시작하셨을게다. 눈을 뜨자마자 우사(牛舍)에 장작불을 지피고 우공(牛)들의 밥그릇을 그득 채우는 것으로 말 못 하는 짐승들이 견뎌낸 간밤의 혹독했을 시간을 다 독여주시지 않았을까. 뜨신 국에 밥을 말며 여태도 운신을 않는 ‘젊은것들’을 향해 쫓쫓, 두어 번 째 혀를 차셨을지도 모른다. 아침 설거지까지 끝내놓고, 입 열어 안부 나눌 이 없는 단단한 침묵을 해제하기 위해 몇 번이나 우리 집의 기척을 살피셨을 것이다. 그리곤 안 그런 척 헛기침을 앞세우며 내려오셨을 상황이 보지 않아도 눈에 선하다. 잠시 허리를 펴는 어르신의 입에서 허연 입김이 쏟아진다.

“춥다케썩지만 생각보다는 안 춥네. 원래 눈 온 뒷날은 거렁뱅이 빨래 씻는 날이라 카더라는.”

“거렁뱅이 빨래하는 날이요?”

“그래. 눈 오고 나른 날이 뜨시서 거렁뱅이들이 훌렁훌렁 벗어재끼고 빨래 씻는다 안카나.”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갑툭튀. 나는 어르신들의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언어들 이 튀어나올 때마다 내심 환호를 한다. ‘목구멍에서 목탁 소리가 난다’거나 ‘나이롱 치마가 뽕구나나, 시어메가 죽나’라는, 그네들만의 유쾌하고도 케케묵은 입담에서는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다. 그토록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해학을 어느 글쟁이가 구사한단 말인가. 노트북을 안겨드리고 글을 쓰시라 권하고 싶어질 정도다. 한 잔, 뜨거운 커피 값을 치르듯, 어르신은 어제 잠깐 날린 눈발과 오늘 날씨 사이의 상관관계를 명쾌하게 풀어놓곤 자리를 털고 일어나신다.

세상은 다시 고요하다. 잠시 어르신과 내가 만들었던 소리의 파편들도 단단한 침묵 속으로 가라앉는다. 남편마저 집을 나서고 나면 나는 종일 고요 속을 서성거리게 될 것이다. 가까운 이웃이라고 해봐야 오른쪽으로는 내리 세 채가 빈집이고, 왼쪽으로는 커다란 창고 너머 띄엄띄엄 인가 세 채가 밤이면 불을 밝힌다. 그러니 인기척을 만들어 낼 사람은 열 손가락 안쪽에 불과하다. 그마저

도 낮이면 집을 비우는 경우가 생기고. 열혈 분투하던 농기계들도 동안거를 누리고 있으니 오로지 고요만을 깔고 덮게 되는 계절이 겨울인 셈이다. 하루에 한두 번 훌쩍 물건을 던져놓고 가는 우편배달부나 택배기사 외에는 외부 사람 구경하기가 힘들 정도다. 같이 거들자면 몸이 고달프고, 보고만 있기에는 마음이 고달프지만, 이따금 시끌벅적 땀 흘리던 농번기가 그리워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운 것만 빼면 나는 겨울이 그다지 곤혹스럽지 않다. 땅의 호흡이 없으니 호미 들일이 없다. 심심하다거나 외로워서 말 섞을 누군가를 찾아 나설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 오로지 홀로인 시공은 긴박하거나 호흡이 긴 문장 속에 만들어 놓은 괄호 같다. 오감을 넉넉히 풀어 놓고 느긋하게 들었는 일이 용인되는 계절, 나만의 케렌시아라 할까. 말하는 입이 없으니 들을 귀를 준비하거나, 행여 모를 오독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어감까지 가미해가며 답을 마련해야 의무도 없다. 당연히 관계의 잡음 같은 것도 훨씬 덜하다. 그저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적당히 타협만 하면 삶이 평온하다.

책이 눈에 들어오면 책을 읽고, 길고양이 기적이 나면 밥그릇을 채워준다. 자판을 두드려 몇 자 글을 읽어보기도 하고, 정치니, 경제니 하는 골치 아픈 세상 소식도 켜다. 생산성 없는 어제를 회상하거나 고즈넉한 들판을 해찰하는 일로 시간을 죽여도 조급하지 않다. 바쁨이 사라진 자리에 들앉은 공허마저 한 땀 한 땀 쬐어가며 하루라는 피륙을 내 식대로 완성한다.

무엇보다도 가장 귀찮은 이유는 지극한 고요 속에서 잃어지는 소요 때문이다.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내는 소리가 잠잠해지고서야 정체를 드러내는 어떤 소리. 늘 그곳에 있어 왔고 청각을 두드렸으련마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소리가 겨울엔 확연하게 들린다. 세상의 데시벨에 가려져 없는 듯이 존재했던 것들이 원 없이 제 목소리를 내는 겨울에는 귀가 오감의 최일선으로 나선다.

빈 가지에 매달리는 바람 소리라든지, 말라 바스락거리는 낙엽이 마당을 구르는 소리는 문을 닫고 있어도 훤히 들린다. 마른 삭정이를 부러트리며 산이 울고, 투명하기조차 한 창공을 가르며 새가 울고, 멀고 가까운 축사에서 되새김질하던 소도 운다. 덩달아 찡찡 집도 운다. 빈 눈에 쌓아놓은 곤포 사일리지에서 찢겨진 비닐 자락까지 펠럭펠럭 바람의 경전을 외우고 든다. 이따금 거대한 철새 군단이 굉음을 일으키며 머리 위를 까맣게 비행하기도 한다. 사방으로 두툼하게 깔리는 고요가 없었다면 결코 만나지 못했을 소요의 현장이다.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고요를 들추고 귀가 건져 올리는 소리에 데시벨을 운운하며 타박하지는 않는다. 그 소리에는 숨겨진 의도 같은 건 없다. 마중도, 배웅도 필요치 않다. 고심으로 답을 내놓아야 할 의무감을 부추기지도 않는다. 그들이 불시에 저벅저벅 소릿골을 울리고 들어오는 순간, 귀를 열어주기만 하면 된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 겨울을 만들어냈다면, 분명 그것은 세상 모든 불협화음의 주변인 인간을 잠시나마 문 안으로 구금해놓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싶어질 정도다.

귀가 순해지니 마음마저 순해지는 계절. 휴식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이 좁아웃 되는 풍경 속으로 인간 이외의 만상이 좁인 된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한 철, 겨울은 겨울답게 꿈꿨던 얼어붙어 주는 것도 괜찮겠다.

글 문경희 수필가

## 실존의 경계를 연기처럼 넘나들다 시각예술가 정안용



· '유경도시', '사라짐에 대하여' 등 다수 개인전 및 단체전 개최  
· CGV, 포르쉐, 배틀그라운드, 넥슨, 삼성 등 다수 기업과 협업  
· 기장장애인복지관 '작가양성교육' 강사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실존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더 강한 생명력을 가지기도 한다. 실존의 경계를 연기처럼 넘나드는 시각예술가 정안용은 스스로를 단정짓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실체 없음'으로 인한 자유로움이 그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실체처럼 느껴졌고, 그러한 실체의 부재는 그의 작품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생명력을 불어넣어 준다.

모든 것은 사라지기 마련이다. 사라진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정안용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작가다. 흐릿한 연기가 느슨하게 뒤엉키며 단단한 형상을 이뤄내는 찰나의 이미지는 작가의 오랜 꿈이자 보이지 않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는 최근 연속된 두 번의 전시에서 '지역의 사라짐'에 대해 이야기하며 작품의 경계를 한층 더 확장하기도 했다. 한 인간의 꿈부터 지역의 미래에 이르기까지, 그의 작품은 연기처럼 자유로우면서 흡사 식물이 서로를 휘감듯 부지불식간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연결하고 팽창시킨다. 연기, 즉 사라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 자연스럽다는 것. 그리고 자연스럽게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 새로운 1년을 맞이한 정안용 작가와 그의 작품은 흐릿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또 다른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학부생 시절 조각을 전공했던 그는 꿈이라는 비물질의 조각이라는 행위를 통해 조형화하고자 했다.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을 조형 작업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그는 부재와 실재의 경계를 체험했고, 물질과 비물질의 경계를 넘나들던 작가의 눈에 우연히 들어온 소재는 연기였다. 대단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어릴 적의 그는 점차 연기를 통한 순간의 아



름다음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찰나의 순간 흩어지는 연기의 곡선과 우연함 속에서 이뤄진 여러 번의 전시들은 작가의 자유롭고 실험적인 사유를 과감하게 드러내면서 신선하고 흥미로운 관람 경험을 선사해 주었다.

이제 연기라는 '명사'에서 벗어나 '사라지다'라는 동사로 넘어가고 있다고 말하는 그는 사라지는 것들을 향해 슬픔이나 분노 대신 '자연스러움'이라는 시선을 건넨다. 그는 사라짐을 '산화'로 바라본다. 산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렇기에 사라지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어딘가 초월한 듯한 기운이 느껴지는 그의 말에는 초연함이 서려 있었지만, 이는 단순히 세월에 닳아빠진 마음의 척박함과 거리가 멀었다. 그것은 냉소와 체념에 의한 초연함이라기보다는 가능성과 호기심으로 활짝 열린 담대함 같은 것이었다.

한정할 수 없는 가능성과 호기심을 오랜 세월 담보해주었던 연기가 이제 스스로 길을 개척하듯 정안용 작가의 작품 세계는 삶의 다양한 구석으로 퍼져나가면서 넓어지고 있다. '그때, 지금 어디에 살 것인가' 전시에서 그는 한 명의 플레이어이자 '디렉터'로서 여러 예술가들과 협업하며 사라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새로운 작업에 대한 욕심도 내보였

다. 기장장애인복지관에서 작가 양성에 힘쓰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 중에 있다고 말하는 정안용 작가의 예술적 외연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넓고 방대했다.

경계를 구분 짓는 일은 우리를 편리하게 만드는 동시에 그 편리함에 우리를 구속한다. 모든 것이 사실과 효율이라는 기준으로 나뉘지는 현대에서 정안용 작가의 '구분짓지 않음'의 태도는 사회가 더 나은 이야기와 가치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준다. 우리를 둘러싼 울타리를 부정하는 일, 울타리가 '사라지는' 순간 세계는 새로운 영역에 도달할 수 있으며 그것이 꼭 긍정적일 순 없지만, 꼭 그렇지 않으리란 법도 없다.

글 인물사진\_이건희



## 전통문화 꽃예술 홍보와 공유 노력

부산꽃예술작가협회  
신임 회장

# 최정애



2024년 12월 11일 열린 제21회 부산꽃예술작가협회 정기총회에서 제10대 회장으로 최정애 작가가 선출되었다. 최 회장은 15일 11시 취임식을 가지고 앞으로 4년간 부산꽃예술작가 협회를 이끌어가게 되었다.

부산꽃예술작가협회는 지역의 꽃예술 작가들의 모임으로 작가들의 권익과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작품 전시회를 열고 홍보 활동을 펴고 있다.

꽃예술 분야가 예술의 장르로 정립되어 온 역사 과정을 설명했다. 우리나라 꽃꽃이 역사는 먼 옛날 단군신화를 시작으로 신을 모시는 제천의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삼국시대를 거쳐 근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의식과 생활 속에

서 꽃피워 왔고, 불교문화와 함께 일본에 전수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고려와 조선 시대로 이어지면서 궁중 의식과 같이해 왔고, 선비들은 서재에 꽃을 꽂아두고 즐기는 등 생활 속에 꽃 문화가 정착해 왔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꽃 문화는 궁중의식에서 장엄하고 화려했고, 일반인들의 생활 속에 정착했고, 몸 장식에도 꽃을 모티브로 한 치장이 발달해 왔다.

현대의 꽃 문화는 예술의 장르로 자리 잡으면서 학문적인 연구가 따랐고, 예술적 가치를 강조하며 대중에게 알리는 일에도 나서고 있다. 타 예술 장르에 비해 인식이 낮아 꽃작가들의 노력이 더 필요한 부분이다.



최 회장은 한국 전통꽃예술의 예술성과 중요성을 강조 했다. 요즈음 들어 정보 접근이 수월해지면서 외국의 플라워 디자인을 습득하여 응용하는 과정에서 우리 전통 꽃 문화가 소홀해질 때가 많아 안타깝다는 아쉬움을 표했다.

꽃작가협회는 2004년 12월 13일에 창립되었다. 국가무형유산 제124호 궁중채화장 황수로 창립 회장의 노고를 회고했다. 한국 전통 꽃예술을 예술 장르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국내외에 한국 전통꽃예술을 알려 왔다. 협회의 21년 역사를 디딤돌 삼아 회장의 소임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최 회장은 유년 시절부터 꽃을 좋아했다 한다. 눈두렁 밭 두렁의 꽃들이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었고, 자운영 꽃의 붉은색과 하얀색의 조화로움에 빠져들었다.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꽃은 친근했고, 이후에 대중매체와 전문 강사들의 강의를 접하면서 꽃 공부에 빠져들었다. 그에게 꽃은 끝없이 쬐는 샘물과 같이 늘 설레게 하고, 사시사철 대자연에서 만날 수 있어 친구 같다고 했다. 전통과 창작을 넘나들며 꽃과 꽃그릇으로 작품을 만드는 꽃예술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올해의 포부도 밝혔다. 꽃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

민들에게 한발 다가서겠다고 했다. 지역의 학교와 센터에서 꽃예술을 알리는 일부터 챙길 계획이다. 꽃예술의 가치인 정서와 아름다움을 공유하고, 나아가 테라피 효과까지 알릴 예정이다. 꽃예술 분야에 대한 대중 인식이 낮은 현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 가치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과 홍보 기회를 만들고, 확장하는 데 최선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계획으로 소외계층 봉사활동, 시민 대상 플라워아트 체험 교실, 한국 전통문화로서의 꽃예술의 발전 계승, 국제 꽃예술 문화교류, 초·중·고 동아리활동 봉사지도로 청소년 꽃다발 만들기 대회 개최, 지역 예술 단위협회와의 문화교류 및 세미나 개최 등을 준비하고 있다.

최 회장은 꽃예술의 한계와 애로 사항에 대한 고민도 깊었다. 꽃예술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비해 보존성이 짧아 작품으로 판매에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소모적이고 사치로 치부되는 게 과제이자 애로이다.

최 회장은 꽃예술의 보급과 활성화를 위해 전시 기회를 넓히고, 회원이나 시민 대상의 경연 대회를 여는 꿈을 차근차근 실천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글 사진 김재곤



# 우크라이나와 제3의 인생을 사는

지휘자  
**김영근**

- 
- 1976 부산시향 단원
  - 1989 부산여성실내악단 창단 지휘자
  - 1997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음악원 명예교수
  - 2003 우크라이나 국제교류음악제 예술감독
  - 현) 주한 우크라이나 문화원장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2월 24일은 지휘자 김영근 선생의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2014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 돈바스와 얄타를 위시한 크림반도를 무혈로 점령했을 때도 선생의 음악을 기다리는 수많은 동포를 생각하며 그 가혹한 시련을 인내해야 했다. 수많은 사망자와 부상자 그리고 어린이와 노인들의 비참한 삶을 두고 볼 수가 없었다. 우크라이나와 우리 동포를 보호하고 전쟁이 종식되기 위한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실내악단을 초청하여 대한민국-우크라이나 국제교류음악제를 전국을 돌며 '우크라이나 평화기원 콘서트'를 열고 있다. 선생은 현재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체르니우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명예지휘자이고, 주한 우크라이나 문화원장을 맡고 있다.

송정 광어골에 가면 유럽의 한 도시에 온 듯 노란 건물에 눈에 띈다. 꽃피는 계절이면 건물에 형형색색을 띤 꽃으로 장식을 하기도 하고... 문을 열고 들어서니 커다란 화면에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신년음악회 장면과 함께 김영근 지휘자 내외가 필자를 반갑게 맞이했다.

### 음악을 시작하며 비엔나로 향하게 된 여정

선생이 배정고교를 다니던(1968년~970년) 당시에는 부산 관악의 대부인 이흥기 선생이 이끄는 막강의 브라스밴드가 있었다. 입학식 날 밴드부의 우렁찬 사운드에 매료되어 입단하려 했으나 엄격한 규율로 바로 밴드부를 포기하였다. 자유분방한 성격에 조용한 문제아였다고 고백하는 선생은 정규 학교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해 방황하며 지냈다고 한다.

가수였던 누님과 매형은 작곡가였고, 작곡으로 입시를 준비하는 사촌누이도 있던 선생은 부모님 슬하에서 벗어나고자 막연히 서울로 상경했다. 고3 막바지에 작곡과 교



우크라이나 리비프필하모니오케스트라 송년음악회 포스터 (2015년 12월 26일)

수를 찾아가 이론 및 화성학 수업을 받고 그 선생님의 권유로 신설 학과인 단국대학교 음악학과에 진학했다. 당시 단국대 장충식 총장은 음악과에 대한 열정 남달라 전국에 처음으로 슈타인웨이 피아노를 구입했고, 오케스트라를 조직했는데 더블베이스 전공자가 없었다. 지도교수 김달성 교수는 선생에게 더블베이스 전공 권유했고 처음엔 거절했지만 악기 구입과 작곡 전공을 겸할 생각에 승낙하고 만다.

국립교향악단 수석인 홍용범 선생의 다정다감한 교수법은 매일 6시간 이상 연습을 하게 했고, 외로운 타지에서 오케스트라합주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이후 고향인 부산에 시립교향악단이 지휘자와 단원들 간의 갈등으로 단



우크라이나 세바스토폴 필하모니 음악회 후 동포 4세 어린이와 함께(2015)

원 모두 해축되어 오디션 후 선생은 부산시향에 입단하게 되었다. 중등 교사로 근무하라는 강요도 있었지만, 터무니없는 급여에도 불구하고 부산시향 단원으로 활동을 하던 중 얼마 가지 않아 내부 문제로 사임했다. 그 후 클래식학의 본고장에서 공부를 하자는 생각에 선생은 오스트리아 비엔나 유학길에 올랐다. 비엔나 필하모니 콘서트를 보면서 선진화된 예술 세계인 최종 목적지 비엔나 음악을 우리 고장에서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쁜 마음이었다.

### 지휘자의 꿈을 꾸다!

선생은 위대한 지휘자가 되고자 마음먹은 것은 아니었다. 귀국하여 고향 부산에서 실내악단을 창단해 비엔나에서 닦은 음악적 소양을 함께 나누는 데 모토를 두고 지휘 공부를 시작했다. 빈 국립음대 지휘 학위 소유자도 아니지만 이미 교향악단에서 단원 생활로 많은 지휘자를 만났고, 지휘자들의 인격과 단원들과의 수많은 문제와 시비를 겪어 온 터라 지휘자로서 갖춰야 할 덕목과 책임의 한계를 알고자 지휘 공부를 한 것이다.

1988년 귀국하여 이듬해 부산여성실내악단의 창단하여 단원들 모두에게 출연료를 지불하고 초대권이 없는 입장권을 정착하려 고군분투했다. 그러나 1995년까지 지탱하다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 본격적인 음악가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두 아들과 함께 다시 비엔나로 떠난 해가 1997년이었고, 부산여성실내악단은 2021년 부활했다.

### 유럽에서의 데뷔 우크라이나로 간 제3의 인생

다시 비엔나로 돌아간 후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Bratislava 국립음악원 명예교수로 슬로바키아 국립방송교향악단 객원지휘로 유럽에서 지휘자로 데뷔했다. 그 후 폴란드 비에냐프스키필하모니Wieniawski Philharmonie, 킬체 필하모니Kielce Philharmonie, 우즈필하모니Lodz Philharmonie, 첸스트호바 필하모니Częstochowa Philharmonie 등 객원지휘자로 다녔다.

어느 날 첸스트호바 필하모니 첼로 수석의 간곡한 부탁으로 2003년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Запорожье 글린카 필하모니 객원지휘를 맡으면서 운명적인 제3의 인생이 찾아왔다. 자포리자(우크라이나 핵발전소 에너지가 있는 주)에 도착했을 때 선생은 도시의 낙후된 인프라로 도망갈 생각만 했다. 그러나 그들과 연습 중 악장을 맡은 레나라는 여인의 아름다운 눈빛과 열정적인 단원들과 작업은 순박하고 맑은 영혼을 가진 음악인들과의 만남이었지만 여전히 열악한 도시에 다시 오지 않을 다짐을 했다. 2003년 10월 8일로 기억하는 콘서트에서 앙코르로 북한 작곡가 최성환의 아리랑환상곡을 연주한 후 합성이 터져 나왔고 로비에는 우리를 닮은 모습을 한 고려인 2백여 명이 선생을 반겼다. 다음날 그곳에서 존경받는 행정가 한사람이 선생을 찾았고, 그는 선생을 축제장 곳곳을 다니며 소개를 시켜주었다. 선생은 거리에서 10대 소녀 두 명이 흠집 난 사과를 웅크린 채 파는 모습에 거스름돈도 받지 않고 팔아주자 돈을 받고 신나게 뛰어가는 소녀들을 보며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고 한다.

비엔나로 돌아온 선생은 두 번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은 사라지고 멀리 손을 흔들며 뒤돌아보며 뛰어가던 소녀가 아롱거리 2004년 2월 다시 자포리자로 갔으나 그 소녀들은 만나지 못했다. 자포리자 이곳저곳을 누비며 고려인 동포를 찾아다니며 동포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신에게 의문을 던졌다. 어찌다가 우리 민족이 먼 곳까지 와서 외롭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싶어 가슴 아팠다. 3만 여명의 동포들은 조국으로부터 잊혀져 가고 있었다. 이 동포들을 위해 무엇을 할까? 선생은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자고 각오하고 우크라이나의 우리 동포 소식을 우리나라에 전하고자 했다. 우크라이나의 많은 악단과 음악으로 교류하며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인생을 함께 하자고 시작한 것이 '대한민국-우크라이나 국제교류음악제'라는 타이틀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선생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 장남은 빈 국립음대에서 피아노와 지휘를 공부한 지휘자이고 차남은 바이올린과 작곡을 공부하고 작곡가로 활동 중이다. 두 손녀가 각각 첼로와 플루트를 하고 있다. 3대에 걸친 음악가 집안이다. 선생은 앞으로 어여쁜 두 손녀들의 세대가 잘 닦여진 토양 위에서 음악을 잘할 수 있길 소망한다.

글\_김윤선 음악평론가  
인물사진\_김재곤

홍 시

권 미숙

차가운 햇살이  
내려앉은 오후  
아낙네 머리 위로  
바알갈게 익어가는 감

뒤주 속 한겨울 삭혀 가며  
허기진 밤을 채워 주련  
어머니

물해도 소원처럼  
주렁주렁  
익어가는 사랑

작가노트 | 어릴 때 추운 겨울, 우리 형제들의 최고 간식은 단연 뒤주 속 어머니 표 홍시였다.

글\_권미숙 (사)부산문인협회 이사

# RE: VIEW

- 영화** 시민들과 소통하는 영화의 전당, 부산의 문화 정체성 정립에 기여  
영화의전당 고인범 대표
- 문화** 예술 활동과 시민 향유의 선순환 문화 플랫폼 구축에 기여  
부산문화재단 오재환 대표
- 미술** LEO KIM 작가의  
'감정의 스펙트럼展' \_ 권오혁

시민들과 소통하는 영화의 전당,  
부산의 문화 정체성 정립에 기여

## 영화의전당 고인범 대표

고인범 신임 영화의전당 대표는 1월 12일 취임하여 2027년 1월11일까지 임기이다. 동서대 연극학과 졸업했고, 연극, 방송, 영화 등에서 40년간 배우로 활동했고, 부산국제연극제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영화의전당 대표 취임 소감과 운영에 방향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화 배우에서 영화 관련 기관 경영자로서의 변화에 대한 소감도 궁금합니다.**

영화의전당 대표로 취임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화의전당은 단순한 문화시설을 넘어, 영화 예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중심지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운영 방향은 부산의 문화를 사랑하고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 모두가 함께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특히, 전통적인 영화 상영 외에도 문화와 예술이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영화 체험을 제공하고, 부산이 아시아 영화 산업의 허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연기를 해오며, 연극의 4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관객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 철학을 영화의전당 경영에도 반영하며, 영화의전당을 찾는 관객과 방문객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모두에게 최고의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화의전당 연중 행사 중 영화 관련 행사와 단순 행사장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영화의전당은 상설 영화 상영, 국제 영화제 개최, 예술 공연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이 더욱 다채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활용되기를 희망합니다. 시민들과 관광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문화 공간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영화의전당 앞 수영강변 도로의 지하화가 완료되면, 해당 지역을 공원화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화의전당 주변이 단순히 영화 관람을 위한 장소를 넘어 다양



한 문화 행사와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역의 중심지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영화의 도시 부산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앞으로의 변화 계획이나, 부산 영화 발전을 위한 방향에 대한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영화의전당은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기관으로서 지역적 특성과 국제적 감각을 조화롭게 아우르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 영화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부산 출신 영화인과 영화 산업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기반 콘텐츠 제작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영화인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창작 플랫폼을 강화하고, 부산의 영화 제작 기반을 확

장하여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지역에서 제작된 다양한 영화들이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부산의 영화 산업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 중심의 문화 여건 속에서 부산의 문화 환경 개선과 활성화 위한 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 중심의 문화 환경 속에서 부산이 독자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인프라 개선과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역 영화제, 소규모 영화관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창작자와 관객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예술인들이 설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대중과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더불어,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 콘텐츠를 연계해 청소년과 일반 시민들의 문화적 접근성을 높이고, 부산의 문화 환경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 출신 대표 영화인으로서 영화도시 부산의 현 상황과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도 궁금합니다.**

영화도시 부산은 국제 영화제와 같은 대형 행사를 통해 성장했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부산이 진정한 영화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영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독립영화, 다큐멘터리, 실험영화 등 다양한 장르가 성장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부산이 단순히 영화제를 개최하는 도시를 넘어, 영화 제작과 소비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편집실

## 예술 활동과 시민 향유의 선순환, 문화 플랫폼 구축에 기여

# 부산문화재단 오재환 대표

신임 오재환 대표는 1월 17일 취임하여 2027년 1월 16일까지 2년 임기이다. 부산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부산연구원에서 20년 근무하고 부원장을 맡았고, '부산발전 2020비전과 전략', '2050 부산 장기발전전략' 등 부산의 미래를 설계. 문화 분야 부산문화 2030비전과 전략, '지역문화진흥계획', '부산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 부산문화의 기초와 기본 방향 연구에 참여하였다.

### 부산문화재단 대표 취임 소감과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단 대표에 임하는 지금 어깨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하지만 예술인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해 나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부산문화의 현실은 예술학과 폐과, 청년들의 지역 이탈 등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지역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평소 인구 감소로 인한 양적인 지역 소멸보다는 지역문화 정체성의 위기로 인한 질적 원인이 더욱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염두에 둔다면 지역문화 활성화는 지역 문화 정체성을 발견하고, 문화 다양성의 가치 아래 지역의 생존과 직결된 만큼 그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역문화 정체성과 다양성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가 중요합니다.

### 부산연구원에서 부산발전을 위한 연구를 오랜 기간 해오시면서 생각하신 부산의 문화예술의 과제와 방향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지역 문화예술의 선순환구조를 갖추는 것입니다. 창작과 소비의 생태계에서 창작자인 예술인들에 대한 창작지원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창작 공간 조성, 창작 활동 지원과 더불어 신진예술인 육성 등 인력양성의 기본적인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문화예술지원의 원칙인 '팔길이원칙'을 통한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에 간섭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창작 활동이 시민들의 문화권과 맞물려 돌아가야만 예술의 원활한 흐름이 지속될 것입니다. 문화예술의 선순환구조를 연결하고 소통하는 역할이 바로 중간 지원조직인 부산문화재단의 역할입니다. 아울러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지역에 기반을 둔 창작예술 활동과 시민들의 문화 향유가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부산의 문화 환경 개선과 변화를 위한 부산문화재단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부산문화재단은 2009년에 설립되어 16년이 되었습니다. 5년 후 20년의 성숙한 재단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부산문화의 현실은 그리 낙록한 편이 아닙니다. 예술인들의 예술활동과 시민 문화 참여가 여전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를 개선하는 것이 부산문화재단의 역할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저출산 고령화, 디지털과 탄소 중립 등 전환의 시대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환의 시대 부산의 문화 방향과 과제를 파악하여 실천하는 플랫폼으로서 재단의 기능과 역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산문화재단에서 문화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 정책 중 최우선적인 정책 하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문화기관 간의 연계를 통한 예술인 연결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지역의 문화기관 간 연계 강화를 위해 클래식 부산, 문화회관, 영화의 전당, 현대미술관, 시립미술관, 박물관, 구·군문화회관, 기초문화재단 등의 공공 문화기관과의 연계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기관에서의 지역 예술가들의 활동을 적극 펼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 보겠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이 추구하는 예술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지역 문화공공기관의 매개자적 역할과 지원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의 실천을 위한 공공 문화기관의 연계와 예술인과의 연결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연계사업은 지역예술인 지원 사업과 함께 활동의 장을 넓혀주는 것이자 시민들과의 접점을 확대하여 지역 예술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산문화재단의 역점 사업과 지역의 문화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2025년은 국내외 교류 사업과 지역에 기반한 문화예술 지원 활성화 사업에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국내외 교류 사업은 공연예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BPAM) 사업의 강화를 통해 보다 안정화된 공연예술시장을 확대하고, 지역예술인들의 국제적인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예술인의 창작 활동과 연계된 시민 아카데미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교육과 접목된 생활 전반의 문화 예술인과 시민들의 연결을 강화해나갈 생각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부산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노인층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생활공간 기반 문화예술 사업도 적극 추진해 예술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공감과 소통, 일자리 사업과의 연계성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편집실

## LEO KIM 작가의 ‘감정의 스펙트럼展’

글\_권오혁 아티멘션 대표

갤러리조이에서 2024 기획전으로 2024년 12월 20일 ~ 2025년 2월 28일까지 LEO KIM 작가의 감정의 스펙트럼展이 열렸다. 사랑을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의 이번 전시는 색을 사랑의 감정과 연결 지어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Vivid하고 Bright 한 색상으로 인해 기분이 산뜻하고 아주 맑아진다. 춥고 칙칙하고 무채색인 겨울의 추위를 색의 힘으로 아주 짝 날려버린다. 작품을 보고 있노라면 봄에게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었다. 작가는 이렇게 관객에게 행복을 전하고 있었다. 전시장 내 은은하게 퍼져있는 기분 좋은 향기는 작품의 잔상마저 남겼다. 마치 작품 속에 맴도는 향기가 잔상이 되어 내 기억에 스며들었다.

작품과 처음 대면했을 때는 일본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과 많이 닮았다고 느꼈다. 거기서 볼 수 있는 점Dot과 같이 호피 무늬가 작품 여기저기에 그려져 있었다. 하지만 이 내 그러한 점Dot과는 다른 LEO KIM 작가만의 불규칙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호피 무늬에 매료될 수 있었다. 여기저기 마구 찍혀있지만, 결코 어지럽거나 거부감은 들지 않았다. 작품 속 호피 무늬는 사랑의 스펙트럼이 되어 작가와 작품, 그리고 관객을 연결 짓고 있다. 작품의 주제는 꽃, 복숭아, 바구니, 옷, 구두, 소파 등 쉽고 힐링을 연상하게 하는 것들로 관객으로 하여금 거부감 없이 편안함을 안겨다 준다.

‘행복을 도모하다’의 작품은 과일바구니 같아 보이기도

하고 꽃바구니 같아 보이기도 한다. 그 속에는 복숭아처럼 보이는 과일과 커다란 꽃이 한가득 담겨있다. 작품은 호피 무늬로 수놓아 있으며 배경은 샛노란 색으로 가감 없이 칠해져 있다. 그가 관객에게 전하는 사랑에 대한 노란 감정은 행복을 도모하기에 충분했다. 아주 밝고 화사하다. 바구니 한가득 행복을 선물 받은 느낌이 들었다.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켰을 때 볼 수 있는 스펙트럼 중에서 색은 가시광선으로 구분된다. 무지개와 같은 그 각각의 색들은 자신의 고유한 색상을 정확하고 강렬하게 드러내지만, 그 속에 색의 어우러짐은 연속성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이렇듯 강력해 보이는 감정선은 한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상황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듯 변화한다. 그렇듯 감정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각각의 감정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사랑의 감정 또한 머물러 있거나 하나로 딱 정의되지 않는다. 상황의 흐름을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며 그 모양을 바꾼다. 자연스럽게 서로 연결 지으며 작품을 따라 흘러간다.

옷과 구두, 소파가 그려진 그림 앞에 서면, 마치 백화점 명품관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흥미로운 것은 마치 일부러 그러한 느낌이 들도록 유도했다는 듯이 그림과 함께 실재하는 제품이 함께 전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제품이 그림 속에서 튀! 하고 튀어나온 것 같기도 하다. 그림을 그리고 제품을 제작한 것인지, 제품을 보고 그림을 그린 것인지 알 수 없는 모호함 속에 명확한 것은 그림과 실

재하는 제품의 호피 무늬를 자화상 속 작가의 몸에 걸치고 있다는 것이다. 동물의 은신(隱身)을 위해 신이 선물한 무늬는 더 이상 그 기능을 상실하고 둔 보이는 수단이 되었다. 호랑이가 남기고 간 가죽은 마치 곤룡포와 같이 재탄생되고, 이는 작품으로 다시 Representation 되어 관객 앞에 당당히 그 모습을 선보인다.

동물의 가죽은 사랑의 징표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어 그 낮을 피하며 숨었다. 그리고 자신이 벗었음을 인지하고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 입는다. 이를 본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주었다. 피조물인 동물의 죽음으로 가죽을 취한 것이다. 이렇듯 가죽옷은 신이 인간에게 표현한 사랑의 선물이다.

‘내면의 스펙트럼’ 작품에 나오는 하얀 짐승은 인간에게 자신의 무늬를 모두 내어준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새하얗게 변한 이 고양이와 짐승은 무늬를 보아 알 수 있는 그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린 듯하다. 슬픈 고양이와 짐승은 그저 지는 해가 남겨놓은 알록달록한 하늘의 다양한 색을 정면으로 받으며 내면을 채워나가고 있는 듯하다.

구두를 신고 있는 소파는 의인화되어 그려졌다. 소파의 다리는 네 개인데 구두를 두 개만 신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파가 구두를 신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소파에 구두를 신고 있는 사람이 앉아 있다고 연상되도록 의도한 것처럼 보인다. 작품에는 그려져 있지 않지만, 구두만으로 알 수 있는 그 소파의 기다림은 마주 앉을 사람과의 소통을 기대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 소통은 그날의 역사가 되어 새로운 즐거움과 사랑의 감정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러한 기대감으로 가득 찬 소파 그림 앞에 실재하는 실물의 소파가 놓여있다. 그 소파에 잠시 앉



지혜로운 사랑\_Acrylic on canvas, 90.9×72.7cm, 2024

아 소파가 나에게 주는 안락함과 편안함, 그리고 그가 전하는 달콤한 섬과 힐링을 느껴본다.

작가는 골프를 즐겨 쳤었던 걸까? 초록색과 파란색이 시원시원하게 칠해져 있는 필드 그림이 눈에 들어온다. 필드 그림에서는 호피 무늬가 마구 그려져 있지는 않았다. 필드 위에 놓여있는 골프공이 호피 무늬로 그려져 있었다. ‘사랑은 이런 고래’, ‘웅기종기’와 같이 동화 같은 제목을 가진 이 작품에서 호피 무늬를 한 골프공이 사랑의 연결선이 되어 작품을 연결 짓고 있다. 골프공은 개인의 주체가 되어 그들만의 색을 가지며 다름을 말하고 있지만, 어우러짐을 통해 즐거움과 사랑의 감정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 필드가 그려진 작품 속에는 이런저런 대화가 가득하고 서로의 웃음소리가 바닷바람을 타고 시원하게 들려오는 듯하다.

스펙트럼 시리즈는 각각의 전혀 다른 색을 감정선의 연결고리로 넘나들며, 자연스러운 감정선이 되어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 복잡 미묘한 감정선의 연결을 따라 작품과 소통하다 보면 그가 보여주는 색의 에너지로 어느덧 마음은 파스함으로 가득 찬다.

건축과 서예Ⅷ

# 조선시대 국립지역교육기관 기장향교



기장향교

### 모든 군현에 향교를 건립하다

조선시대 국가의 지도이념으로 채택된 성리학을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해 '1읍1교'의 원칙에 따라 전국의 모든 군현에는 향교가 건립되었다. 향교는 유학의 종장인 공자로부터 국가가 인정한 도학<sup>道學</sup>이 뛰어난 선현들을 봉사<sup>奉祀</sup>하는 향사<sup>享祀</sup>공간과 이들의 학행을 따르고 배우는 강학<sup>講學</sup>공간으로 구성된다.

향사공간은 대성전<sup>大成殿</sup>과 동무<sup>東廡</sup>·서무<sup>西廡</sup>이며, 강학공간은 명륜당<sup>明倫堂</sup>과 동재<sup>東齋</sup>·서재<sup>西齋</sup>이다. 대성전에는 주향<sup>主享</sup>으로 공자를 모시고, 주향 옆으로 서쪽을 상석으로 서동<sup>西東</sup>의 차례로 배향<sup>配享</sup>을 모셨고, 아래 별채인 동무와 서무에는 종향<sup>從享</sup>을 모시는 양식이었다.

일반적으로 향교는 대성전을 중심으로 동무와 서무에는 공자의 제자들과 중국의 저명한 도학에 밝은 72명 등 모두 90여위의 유학자들을 나누어 모셨는데 너무 수가 많아 94현의 위패는 매안하고 나머지 동·서무의 위패는 모두 대성전으로 옮겼다. 원래 동·서무는 주주·부부·군군의 향교에만 있었다. 현縣의 향교는 종5품의 현령이 다스리는 제법 큰 고을에는 동·서무를 두는 경우도 있었으나, 종6품의 현감이 다스리는 경우에는 동·서무가 없이 대성전 하나가 모두의 기능을 감당하였다.

기장향교는 동무·서무가 없이 대성전에 주향인 문선왕 공자를 비롯하여 복성<sup>復聖</sup> 안자<sup>顔子</sup>, 종성<sup>宗聖</sup> 증자<sup>曾子</sup>, 술성<sup>述聖</sup> 자사<sup>子思</sup>, 아성<sup>亞聖</sup> 맹자<sup>孟子</sup>의 사성<sup>四聖</sup>을 배향하고 중국에서 성리학을 개척한 정이·정호 형제, 주희, 주돈이, 소옹, 장재의 송조6현, 우리나라 18현을 종향으로 하고 있다.

### 향사공간의 중심 대성전, 그리고 향교의 교육공간 명륜당

향사공간의 중심은 대성전이다. 통상 전殿은 왕이나 왕비의 거소만을 일컫는 것이다. 왕세자까지도 전殿이라 하지 않고 저殿<sup>邸</sup>라 하였다. 왕을 전하<sup>殿下</sup>라 부르는 것도 임금의 거소 아래에 있겠다는 뜻이다. 불·보살은 천왕과, 명왕, 귀왕 등의 권속으로 거느리고 있기에 왕과 같거나 높다고 하여 사찰의 불·보살을 모신 집만은 전殿이라 하였다.

공자는 왕이 아닌데도 전에 모셔진 까닭은 중국의 역대 왕조에서 왕으로 추봉되었기 때문이다. 공자는 사마천의 사기에 제후나 분봉왕<sup>分封王</sup>과 같이 공자 세가를 개설하여 세가<sup>世家</sup>에 기록되었다. 기전체에서 황제, 천자는 본기에 기록하고, 제후나 왕은 세가로 분류하였는데 공자는 왕이 아닌데도 세가를 세우고 그것을 기록하여 왕과 동격으로 하였다. 739년 당 현종<sup>玄宗</sup>은 공자를 문선왕에 봉했으며, 송 진종<sup>眞宗</sup>은 현성문선왕<sup>玄聖文宣王</sup>과 이어 지성문선왕<sup>至聖文宣王</sup>에 추봉하였으며, 원나라 무종<sup>武宗</sup>은 대성지성문선왕<sup>大成至聖文宣王</sup>에 가봉하였다. 그렇기에 대성전의 명칭은 대성지성문선왕전의 줄인 말이다. 공자가 왕인 까닭에 공자를 모신 성균관을 반궁<sup>泮宮</sup> 또는 근궁<sup>芹宮</sup>이라 하고, 향교를 교궁<sup>校宮</sup> 또는 재궁<sup>齋宮</sup>이라 하였다. 우리가 황제를 폐하<sup>陛下</sup>라 하는 것은 황제의 거쳐 계단을 폐하<sup>陛</sup>라 하여 그 아래에 있겠다는 뜻이며, 왕을 전하<sup>殿下</sup>라 부르는 것은 그 집 아래에 있겠다는 뜻이다.



기장향교 명륜당 현판



제주향교 명륜당 현판 [新安朱熹書]



무주향교 명륜당 현판 [新安朱熹書]



기장향교 세심문 현판



기장향교 풍화루 현판

성하<sub>聖下</sub>, 각하<sub>閣下</sub>, 예하<sub>院下</sub>, 슬하<sub>膝下</sub>도 모두 같이 집이나 앉은 자리, 무릎 등에서 그 아래에 머물겠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18현은 조선시대를 기준하여 홍유후 설총, 문창후 최치원, 문성공 안향, 문충공 정몽주의 이른바 전조 4현과 동인 계열인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 이황의 동방 5현과 이이, 성혼, 조헌, 송시열, 송준길, 김집, 김장생, 박세채, 김인후 등 9현이다. 향교의 향사는 증춘인 음력 2월과 증추인 음력 8월의 일진에 앞에 정자가 들어가는 첫 날에 올렸다. 증춘과 증추의 초정일은 무조건 석전<sub>釋奠</sub>이라는 향교 향사이고, 증정일은 서원의 향사이며 말정일은 일반 단소<sub>壇所</sub>의 향사였다. 강학공간은 교실격인 가장 큰 건물인 명륜당을 중심으로 기숙사인 동·서재가 있었다. 이에 따라 향교가 있는 곳은 향교동, 교동, 명륜동으로 불렸다.

#### 기장향교 명륜당의 현판글씨

현재 기장 향교 들어서는 출입문에는 풍화루란 누각 현판이 있으며 이를 지나면 명륜당이 있고 그 뒤에 신문<sub>神門</sub>을 지나 대성전이 있다. 기장 향교의 건물 배치는 급경사지 대지를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외삼문인 세심문<sub>洗心門</sub>으로 진입하는 진입공간, 풍화루<sub>風化樓</sub>와 동재·서재, 명륜당으로 구성되는 강학공간, 대성전 일곽의 제향공간으로 정확히 구분하고 있다. 기장향교는 조선 후기 건축으로, 남북 병렬축에 외삼문과 누각을 모두 가지고 있는 곳은 부산·경상남도 일대 직렬형 향교 중 기장 향교가 유일한 예이다. 향교의 현판들은 한결같이 누구의 글씨인지는 판지가 없으며, 기록도 남겨져 있지 않다. 이 현판들은 공자님 앞에서 문자 자랑 할 수가 없어 이름도 숨기는 편이고 글씨도 엄정한 해서<sub>楷書</sub>로만 쓰고 있다. 또 해서의 해<sub>楷</sub>는 공자묘 앞에 공자의 제자인 자공<sub>子貢</sub>이 심었다는 나무이기도 하여 성균관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향교가 반드시 해서로 적었다. 성균관을 비롯하여 전국의 향교에 있는 대성전과 명륜당은 글씨가 모두 비슷비슷하여 흡사 한 사람이 쓴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이다. 다만 대성전의 전<sub>殿</sub>자만 글씨 쓰는 사람의 습관이나 재주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다. 원래 전<sub>殿</sub>자는 죽음 시<sub>尸</sub>자 아래에 함께 공<sub>共</sub>을 하고

그 옆에 몽둥이 수<sub>ㅁ</sub>자를 한 글자이다. 몽둥이 수<sub>ㅁ</sub>자는 안석 궤<sub>ㅁ</sub> 아래에 또 우<sub>ㅁ</sub>를 한 글자인데, 안석 궤<sub>ㅁ</sub>를 입 구<sub>ㅁ</sub>자나 저녁 석<sub>ㅁ</sub>자와 비슷하게 바꾸기도 하며, 또 우<sub>ㅁ</sub>자는 흔히 등글월 문 자라 불리는 뒤쳐져올 치<sub>ㅁ</sub>로 바꾸어 쓰거나 아예 문묘인 까닭에 글월 문<sub>ㅁ</sub>자로 쓴 경우도 있다. 명륜당의 글씨는 다른 향교의 경우 주자의 글씨를 집자<sub>ㅁ</sub>하여 썼다는 관지가 있는 경우가 있어 모두 주자의 서체로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성전의 글씨도 명륜당과 대동소이하여 주자의 글씨체로 유추된다. 가장 향교의 출입문인 세심문과 풍화루 현판은 같은 사람의 글씨로 보이는데 역시 작자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 중수 역사를 기록한 기장향교 명륜당 기판<sub>ㅁ</sub>들

기장향교는 1617년(광해군9)에 처음 지어졌으며, 1855년(철종6) 성묘중수기<sub>ㅁ</sub>의 기록으로 보아 지금 있는 대부분의 건물은 이 때 지어진 것이다. 기장향교 일대는 1996년 부산광역시 기념물로, 기장향교의 풍화루는 2012년 부산광역시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되었다.

풍화루가 언제 창건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남루<sub>ㅁ</sub>상량문에 의하면 1628년(인조6)에 남루를 개조한 기록이 있어 임진왜란 이후 남루<sub>ㅁ</sub>라고 하다가 후대에 풍화루로 고친 것으로 여겨진다. 명륜당에는 동재<sub>ㅁ</sub>와 서재<sub>ㅁ</sub>가 있는 반면 대성전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무<sub>ㅁ</sub>와 서무<sub>ㅁ</sub>가 없다. 명륜당은 양쪽에 1칸씩의 교리실<sub>ㅁ</sub>이 온돌로 되어 있고, 가운데 3칸은 우물마루로 되어 있다. 명륜당 안에는 많은 중수기의 기판<sub>ㅁ</sub>이 현과되어 있는데, 「향교중수기<sub>ㅁ</sub>」, 「성묘중수기<sub>ㅁ</sub>」, 「교궁중수기<sub>ㅁ</sub>」, 「교궁중수별판기<sub>ㅁ</sub>」 등이 있으며 이 밖에 기장군수의 선정비적인 「이후거사기<sub>ㅁ</sub>」도 있다. 그 가운데 기장향교의 내력을 가장 잘 설명한 기판은 1982년 당시 경상남도 문화유산위원이었던 정중환<sub>ㅁ</sub>이 짓고, 기장향교유도회 지부장이자 서예가 안영<sub>ㅁ</sub>가 쓴 「교궁중수기<sub>ㅁ</sub>」이다.



기장향교 집인관 현판  
글씨\_최근덕

한편 기장 향교 사무실과 유림회관으로 쓰이는 신축 건물은 '어진 사람들이 모이는 집'이란 뜻으로 집인관<sub>ㅁ</sub>라 명명되었는데, 경남 합천 출생으로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교수, 유학대학원장, 성균관장 등을 역임한 최근덕<sub>ㅁ</sub>(1933-2024)의 글씨이다.

글\_이현주 부산시 국가유산위원

## 출산율 높이는 ‘행정 지혜 총합’의 가룩한 결과물



고고성呱呱聲. 갓난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음을 알리는 ‘응애~, 응애~’하며 우는 소리를 말합니다. 자녀의 출생 순간을 기다린 부모나 가족에게 그 고고성은 그냥 ‘울음’이 아니라 천지신명에게서 받은 격한 ‘감동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세상을 떠받치는 강력한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고고성 하나하나가 모여 가정이 구성되고 지역사회가 형성되며 한 국가의 총인구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쉼 없이 들리는 것은 각 가정은 물론 어린이집단과 지역사회, 국가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선진국

에서 그러했듯이 대한민국에서도 그 ‘축복의 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그 속도는 빨라도 너무 빠릅니다. 아이는 ‘심각하게’ 적게 태어나고 고령자는 ‘심각하게’ 많아지는 ‘저출생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2024년 12월 23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1,024만 4,550명)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고 행정안전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제연합(UN)은 한 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2035년에는 노인 인구가 30%를 넘어서고, 2050년에는 40%에 진입하는 등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치닫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인구 100명당 40명이 65세 이상인 노인의 나라. 25년만 지나면 한국이 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2072년에 일어납니다. 국가통계포털의 인구상황판을 보면 2072년의 한국의 중위연령이 63.4세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72년의 총인구수는 2025년(5,168만 명)에 비해 1,540만 명이나 줄어든 3,622만 명이고, 중위연령은 2025년보다 무려 16.7세나 더 높아집니다. 중위연령(Median age)이란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일렬로 세워 단순하게 2 등분한 연령을 말하는 것으로, 인구 노령의 지표가 됩니다. 3,622만 명을 일렬로 세워 놓으면 63.4세가 중간 점을 차지하게 되니, 63.4세 이상의 고령자가 까마득히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1960년 중위연령은 20.0세였습니다. 신생아나 젊은이는 보기 힘들고, 63세의 노인이 중간 나이가 되는 '초초초초超超超超0 고령사회' 나라로 떨어지는 것이죠.

인구와 관련한 '안타까운 수치'는 또 있습니다. 바로 합계출산율 부분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2023년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은 0.720명입니다.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써 연령별 출산율(ASFR)의 총합입니다. 한국의 연도별 합계출산율 추이를 보면 2014년 1.205명에서 2015년 1.239명으로 살짝 오르는가 싶더니 2016년 1.172명, 2017년 1.052명 등으로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다 2018년엔 0.977명이 되

어 사상 처음으로 1명 이하로 떨어진 뒤 2019년 0.918명, 2020년 0.817명, 2021년 0.780명, 2023년 0.720명 등으로 끝없이 추락해 갔죠. 한국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세계 합계출산율 2.25명에 크게 못 미치는 꼴찌 수준입니다. 합계출산율로 인구 증감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성 한 명(부부 2명)이 최소한 2.1명을 낳아야 인구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아이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합계출산율이 2.25명이니 지구상의 인구는 약간씩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급속도로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웃 나라 일본의 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일본 총무성 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총인구는 1억 2,718만 명이었지만 수도권만 4명 중 1명이, 지방은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일 정도로 무려 28%가 65세 이상 노인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또 2023년 10월 기준으로 총인구(1억 2,805만 명) 중에서 75세 이상 고령자가 처음으로 2,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는 당연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매년 예산의 3분의 1가량을 사회 보장 비용으로 지출해야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2005년 1.26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일본의 합계출산율이 정부의 피나는 노력 끝에 상승세를 보여 2017년에는 1.43명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원천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주출산 세대인 20, 30대 여성이 급감한 상황이어서 획기적으로 꾸준한 출산 증가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 때 문인지 UN 세계 인구 전망에서 일본이 2030년에는 1억 2천만 명 선이 무너지고 2060년엔 1억 명도 붕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구는 '숫자 0'과 밀접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0의 연구를 문서로 남긴 최초의 인물은 인도 수학자 브라마굽타입니다. 그는 628년에 쓴 자신의 저서 《우주의 창조》에서 '0은 같은 두 수를 뺄셈하면 얻어지는 수'라고 정의했습니다. 브라마굽타는 또 그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태, 즉 무<sup>無</sup>의 상태를 0이라고 부르고, 0은 실제 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어떤 수에 0을 더하거나 빼도 그 수는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0을 곱하면 어떤 수도 0이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0은 유리수 실수 복소수에 포함되며, 덧셈과 뺄셈에 대한 항등원이고, 수직선과 좌표계에서 원점이 됩니다. 산술에서는 +0과 -0 모두를 0으로 간주하며, 위치적 기수법에서 자릿값이 비어 있음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쓰이고, 0의 역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0은 비존재, 무<sup>無</sup>, 무한정한 것, 영원한 것, 질이나 양을 초월한 것 등의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이처럼 '비존재'이며 '무'가 0인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으면 대<sup>代</sup>가 끊기니 결국 '무자식의 집안'은 0으로 곱라 집니다. 아이를 하나만 낳는다면 형제자매<sup>兄弟姊妹</sup>가 사라지고,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태어나서 일가<sup>一家</sup>를 이룬 시조<sup>始祖</sup>도 무의미한 존재가 됩니다. 삼촌<sup>三寸</sup>과 사촌<sup>四寸</sup>, 외삼촌<sup>外四寸</sup>, 고종사촌<sup>姑從四寸</sup>도 먼 옛날이야기 속의 존재가 되어갑니다. 인간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형제자매, 삼촌과 사촌, 외삼촌과 고종사촌 등 친인척과의 관계에서도 지혜를 배우고 갈등 해소법을 배웁니다. 젊은이 중에서 결혼을 거부하거나 결혼을 포기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육아와 교육 등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아예 출산을 포기하거나 아이를 하나만 낳는 세대가 급증하면서 '비존

재'와 '무', 즉 '0'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아이를 적게 낳거나 낳지 않으면 가문<sup>家門</sup>이 사라지고 마을이 없어지게 됩니다. 예언서나 학술서에서 아주 많이 언급되었지만 까마득하게만 느껴졌던 '지방 도시·국가 소멸'도 진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으면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회와 국가의 '근간'이 무너지고 사라지는 '0'의 상태로 빠져들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0'은 곱하기 나눗셈에서 모든 숫자를 빨아들여 '0'을 만들어 버립니다. 덧셈과 뺄셈에서 '0'이 주어지더라도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깡그리 없어지거나 딱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을 뿐입니다. 합계출산율 2.1 미만이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2024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1은커녕 1보다 한참 아래 수치에서 해매는 상황입니다. 이는 국가 존속의 근간인 인구가 격감함으로써 한국에 비상등이 10개, 100개나 켜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최근 들어 출산율이 약간 높아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통계청이 2024년 12월 26일 발표한 '10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10월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2,520명(13.4%) 늘어난 2만 1,398명을 기록, 10월 기준으로는 2010년 15.6% 이후 14년 만의 최고 증가율이라고 합니다. 출산율의 사전 지표인 혼인 건수도 10월 1만 9,551건으로 전년에 비해 3,568건(22.3%)이 증가했는데, 이는 2018년 이후 6년 만의 최고 증가율입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합계출산율 0.74명은 당초 예상했던 0.68명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증가해

23만 명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더 큰 변화를 예고하는 희망의 신호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끝없이 추락하던 합계출산율 통계치가 상승 국면으로 전환되었다니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71년 4.54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1980년 2.82명, 1990년 1.57명, 2000년 1.48명, 2010년 1.23명 등으로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정부는 1990년대 들어 인구 격감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어떻게 된 셈인지 전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혼 적령기의 젊은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미미한 수준의 예산 지원이었거나, 엉뚱한 곳에 예산을 낭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2024년에 와서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함께 늘어났다니, 전 국민이 펄쩍 뛰며 좋아할 만한 ‘낭보’입니다.

이미 15년, 1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필자가 전문가들에게 저출산 해결책을 물어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정부나 지자체의 ‘짚꼬 지원’ 형태를 비판했습니다. 출산축하금 50만 원, 100만 원으로 생색 내선 안 된다고 질타했습니다. 아예 신혼부부에게는 임대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육아 및 교육지원금으로 5천만 원, 1억 원씩을 지급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산 사정 운운하면 아이 1명이 태어났을 때의 ‘파생적인 효과’를 계산했을 때 그것도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기업체와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획기적인 지원책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어마어마한 집값, 양육비와 교육비 걱정에 어떻게 결혼할 엄두를 내겠느냐는 거죠. 지나고 보니 그들의 지적이 ‘확실하게’ 맞았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요즘 지자체나 정부의 출산 지원책의 수준이 20년, 15년, 10년 전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임신 1회당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로 임신출산지원금을 받습니다. 임신하면 자동차 보험 할인은 물론 병원 외래 진료비도 10~60%까지 할인받을 수 있고요. 또 임신부는 보건소로부터 업산제와 철분제 지원을 받고, KTX와 SRT 요금 할인도 받습니다. 임신첫만남이용권(여금액 200만 원)도 제공되고, 출산 부모급여는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아동수당으로 95개월 동안(만 8세 생일 전 기간) 10만 원씩 받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출산육아지원금 100만 원에서 보육료 514,000원을 제한 486,000원이 부모에게 입금됩니다. 부영그룹은 아이 1명을 낳은 직원에게 실제로 1억 원씩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십수 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며 촘촘한 출산 지원 정책이 발굴되고 시행되고 있는 덕분에 ‘출산 행렬’에 동참하는 신혼부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 산업? 국방? 학문? 스포츠? 문화? 예술? 이 모든 분야의 시작점은 출산이고 아이입니다. 출산율 증가는 젊은이들에게 집 문제 해결과 양육비 및 교육비 문제, 경력 단절 문제 등을 해소하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될 때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들은 아낌없이 젊은이의 출산 지원에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출산율 증가는 ‘행정 지혜의 총합’이 가동될 때 손에 쥘 수 있는 ‘가룩한 결과물’인 것입니다. 출산율이 빵빵해야 국가의 영속성도 담보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문화와 예술도 꽃피울 수 있을 거고요.

글\_심수화 언론인 칼럼니스트

## K-문화 시대에 우리의 예술과 건축은?

2024년 10월 10일, 스웨덴 한림원 사무총장이 '한강'이라는 이름을 부르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없었다. 예년과 달리 한국 문학계에 서도 노벨상에 대한 기대 섞인 말마저도 좀체 들리지 않았다. 스웨덴 한림원 발표를 생중계하던 민음사 유튜브 패널 중 그 누구도 한강 작가를 유력한 수상자로 꼽지 않았다. 그렇기에 한강 작가의 수상 소식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국가 문화 예산에서 문학, 출판 관련 예산의 대부분은 없애거나 삭감한 가운데 들려온 소식이라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마침, 방송에서는 <흑백요리사> 열풍으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한껏 높아져 있었다. 주말에는 국극 드라마 <정년이>로 인해 자칫 문힐 뻔한 여성 창극도 조명받기 시작했다. K-팝, K-영화·드라마, K-푸드에 이은 K-문학의 성과는 한국 문화의 저변이 인문예 바탕을 두고 있음을 다시 확인하게 했다. 그렇다면 우리 건축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학이 언어를 통해 인간과 세상을 깊게 이해하게 하고 역사를 담아내는 역할을 한다면, 건축은 인간의 삶과 문화를 공간에 담아 기록한다.

문학을 포함해 물리학, 화학, 경제학 등 노벨상이 아우르는 분야는 많지만, 그중 건축만은 예외적으로 빠져 있다. 건축이 명확한 과학적, 문화적 성과로 측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대신, 건축에는 '프리츠커상'이 있다. 이 상은 프리츠커 가문이 운영하는 하얏트 재단이 매년 3월, 살아있는 건축가 중 가장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건축가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릴 만큼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한다. 단순히 건축가 개인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건축을 통해 한 나라의 문화적 깊이와 철학, 그리고 예술을 대하는 태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특정 건축물이 아니라 한 건축가의 건축관, 혹은 건축세계 전체를 평가하는 상이다.





금생도서관 © 사진 윤준환

(주)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와 (주)서원건축사사무소가 건축한 도서관으로, 독서여유산(讀書如遊山)<sup>1)</sup>을 콘셉트로 하여 산을 오르듯 자연스럽게 오르내리며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교류의 장을 만드는 데 초점을 뒀다. 아울러 'BOOK GATE' 형태의 매스 계획과 펼쳐진 책을 모티브한 리듬감 있는 입면 계획으로 상징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경사 지형을 고려해 내·외부를 연결하는 공간을 계획함으로써 사용자의 공간 경험을 풍부하게 만들며 개방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했다. 배치 및 경관계획, 건축계획, 친환경계획, 구조계획 등 분야별 계획을 세심하게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79년 첫 시상 이후 대부분 미주와 유럽 출신, 그리고 일본의 건축가가 수상했다. 그들의 건축물은 현대의 대표적 건축물로 불릴 만큼 모던하거나 아름답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져 지역성을 기반으로 하거나 공동체에 대한 깊은 고민과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프리츠커상이 추구하는 철학은 건축을 단순히 구조물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를 성찰하는 인문과 공학의 결합으로 소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시대의 변화와 함께 동시대의 인문과 철학을 담은 건축이 한 사회의 문화 수준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시대정신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건축물에 녹여내느냐가 결정적 요소이다.

K-팝, K-영화·드라마, K-푸드에 이은 K-문학, 그리고 공연예술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고 있음에도 건축 분야에서는 아직 프리츠커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지난해 3월, 46번째 프리츠커상은 일본의 야마모토 리켄 건축가가 받았다. 이로써 일본은 9번째 수상으로 최다 수상국이 되었다. 이는 건축가 개인의 역량과 더불어 일본 건축의 저력을 보여준다. “일본은 건축을 국가를 설계하는 싱크탱크로 여긴다”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일본인 건축가인 도미이 마사노리 전 한양대 건축과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은 자국의 건축가를 알리기 위한 해외 전시회 개최를 돕는 등 국가 차원의 건축가 육성 지원을 통해 해외 진출의 길을 열어주기도 했다.



판교하우정1 © 사진 Kouichi Satake



판교하우정2 © 사진 GA Photographers

일본건축전문가인 미국 버클리대의 다나 번트록 교수가 일본이 왜 프리츠커 강국이 되었는지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일본 건축가들은 애초부터 프리츠커상에 유리했다고 한다. 프리츠커상 시상이 시작된 1979년부터 1984년까지 심사위원 중에 일본 건축의 중진인 아라타 이소자키가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몇 번을 제외하고 심사위원에는 반드시 일본인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일본 정부가 건축의 국제교류를 강력하게 지원했기 때문이다. 일본재단과 일본협회라는 두 정부 단체가 일본 건축을 세계, 특히 건축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에 알리는 전시회를 지원했고, 외국의 유명인들이 전시회 조직에 참여하도록 힘을 실어주었다. 1978년 파리에서 열린 일본 건축 전시회는 전 프랑스 문화부 장관이 조직을 맡았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세계 주요 전문가들이 일본을 직접 방문하도록 지원하여 일본 건축물들을

널리 알리도록 했다. 이런 기반 다지기로 일본은 현대 건축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건축과 다른 분야와의 활발한 교류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건축인들만이 아니라 건축 외의 시각으로도 건축을 볼 수 있게 다른 분야와 교류하고 분석해 일본 건축의 특징을 새로운 이야기로 만들어냈다. 그런 과정에서 대중성을 얻고 일본은 자국 건축의 성과를 해외에 알렸다. 그 성과가 나타난 것이 프리츠커상이다.

그에 비해 한국은 동아시아 3국(한국, 중국, 일본) 중 아직 수상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나라다. 물론, 상 하나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건축은 어디까지 와있는지 곰곰이 챙겨 봐야 할 시점이다.

지난해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야마모토 리켄 건축가는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프리츠커



판교하우징3 © 사진 Nam Goongsun

#### 판교하우징

아마모토 리켄 건축가가 우리나라에서 2010년에 설계한 타운하우스 '판교하우징'이다. 총 100가구의 공동 주거시설로 9~11가구를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고 가운데를 마당처럼 공유하는 방식으로 되어있다. 현관을 투명한 유리로 마감해 집안이 훤히 보이는 탓에 초기 분양 당시에는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미분양이 났지만, 지난 2020년에는 주민들이 아마모토 리켄을 초청해 감사를 전할 만큼 만족도가 높았다고 한다. 프리츠커상 심사위원회는 그를 선정한 이유로 "사회성이 높은 건축물로 사람들의 커뮤니티(공동체)를 재정의 했다"고 발표했다.

상 수상자가 한 명도 안 나온 이유에 대해 일본의 건축 문화가 한국보다 나아서 수상자가 많은 게 아니라 일본 건축가들이 건축물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내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한국 건축가들에게 제대로 설계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온갖 제약과 규제에 묶여 있다. 한국 건축가들이 불쌍하다. 자유도가 전혀 없다. 그러면서 나 같은 외국인에게는 자유롭게 건축할 수 있게 해준다. 한국에서 유명한 건축물은 거의 외국인 건축가의 작품이다. 요지는 외국인에게 자유로운 건축물을 지을 기회를 주면서 한국 건축가에게 안 준다는 것이다. 이상하다. 한국에도 좋은 건축가가 많다”고 했다. 그의 인터뷰를 보면서 다른 나라 건축가도 아는 사실을 우리가 모를 리 없기에 답답했다. 우리가 우리의 문화와 건축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말고 외국 유명 건축가들에게만 준다면 우리에게 K-건축 시대는 요원하다.

이는 비단, 건축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받아야 예술가나 건축가로 대우받을 수 있다면 예술 문화와 건축은 대한민국에서 각자 도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부산도 마찬가지다. 지역의 문화를 지키고 이어온 예술가와 건축가보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와 건축가 모셔 오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임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로컬 안에서 인류의 보편성을 찾아내고 확장하는 것이야말로 세계화의 시작이다. 올해는 지역 예술가와 건축가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글\_허동윤 (주)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1 “독서는 산을 유람하는 것과 같다. 온 힘을 쏟은 다음 스스로 내려오는 것이 그러하고 알고 깊은 곳을 모두 살펴봐야 하는 것이 그러하다.” - 퇴계 이황

## 조유장 부산시 문화체육관광국장, 부산예총 방문 간담회

### 1. 15.(수) 부산예술회관 한울집

부산시 문화체육관광국 조유장 국장이 부임 인사차 부산예술회관을 방문하여 부산예총 오수연 회장과 단위 협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1월 15일 오후 2시에 부산예술회관 접견실 한울집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조 국장과 참석 예술인들은 여러 애로와 현안 과제들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부산 문화예술계를 대표하여 오수연 회장은 인구 감소 추세에 따른 문화예술인의 급감 위기를 강조하며, 예술활동 지원을 늘리고, 여건을 개선하여 신진 예술인들이 늘어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예술인과 시민들의 다양한 예술문화 활동 공간인 부산예술회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증개축을 포함한 리모델링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올해 계획된 공연장 리모델링 설계 비용 외에 여유 공간을 활용한 추가 리모델링으로 각 협회의 부족한 공간 확보 방안도 건의했다. 또한 회관의 옥상 공간을 증축하여 5, 60명 규모의 오케스트라 연습이 가능한 대형 연습실 확보도 시급한 과제라는 의견도 개진했다. 부산 예술인들을 대표하는 부산예총의 홍보를 강화하여 위상을 높여가야 한다는 고언도 있었다. 각 단위협회장들은 연습실, 전시 공간, 공연장 등 공간 부족에 대한 애로를 토로하며 확충 방안을 위한 시의 행정 뒷받침을 부탁했다. 또 예산 부족으로 위축되고 있는 공연과 전시 활동 상황을 염려하며 재정지원의 확대를 요청하기도 했다. 부산시와 산하 기관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에 있어 단체 규모와 회원 수가 고려되지 않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점도 개선 사항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부산 지역에 들어서는 부산콘서트홀, 부산오페라하우스 등의 공연장에 지역의 신진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타지역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요청도 있었다. 조 국장은 예술인들의 애로와 바람들을 챙겨보고 답이 있는 소통의 기회를 자주 가지겠다고, 예술인들도 힘을 모아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면 시와 함께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를 마치고 조수연 예총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조 국장과 함께 예술회관의 단위단체 사무실과 여러 시설들을 둘러보며 애로 사항들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 부산음악협회 정기총회 및 제50회 부산음악상 시상

### 1. 11.(토)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부산음악협회는 2024년도 정기총회 및 제50회 부산음악상 시상식을 1월 11일 부산예술회관 1층 공연장에서 개최하였다. 1부에서 제50회 부산음악상 시상에서 수상자 역량과 공적을 소개하고 시상이 이어졌다. 시상식에서 공로상은 강규찬 부산문화회관 전속 조율사가 받았다. 수상자는 일본 야마하 기술학교 그랜드 피아노 과정과 독일에서 스타 인웨이 리벨트 부문을 수료하고 국가공인 1급 조율사이다. 현재 부산문화회관, 김해문화의 전당, 부산영화의 전당 전속 조율사이다. 연주부문에 최영화 비올리스트가 받았다. 수상자는 1993년부터 현재까지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900여 회의 공연에 참여하였다. 또한 부

산심포니오케스트라, 뮤즈앙상블 등에서 참여하였고, 2016년부터 민간 자선 단체 유나이티드 코리아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주부문에 김민주 피아니스트가 받았다. 수상자는 중앙대를 졸업하고, 독일 카셀시립음악대학 최고연주자 과정을 수석 입학과 졸업을 했다. 다수의 콩쿠르 1위 입상을 했고, 국내를 비롯해 독일, 일본 등에서 초청 연주회를 가졌다. 여러 예술아카데미와 예술 중·고등학교, 대학 등에서 강사와 외래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2부 총회는 2024년 사업실적 보고와 감사 보고,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회칙 변경 등이 이어졌다. 음악협회는 2025년도에도 4월 2025세계라면축제 부산청년오케스트라에 참가를 시작으로 12월 송년음악회까지 14개의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 부산문인협회 정기총회 및 이사장 선거, 제20대 이사장 박혜숙 시인 선출

### 1. 17.(금) 오후 3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사)부산광역시문인협회(이사장 이석래) 2025년도 정기총회가 1월 17일(금)에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최상윤 고문과 최영구 고문을 비롯해 회원 400여 명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뤘다. 이석래 이사장은 “지난 3년을 회고하며 앞이 보이지 않는 깊은 숲을 헤쳐온 심정”이라고 회고했다. 이날 총회에서 제20대 이사장에 박혜숙 시인이 선출되었다. 박 시인은 투표에서 단독 출마해 총투표 424명 중 찬성 376표, 반대 46표, 무효

2표로 88.7%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당선되었다. 이어서 제19대(이석래), 제20대(박혜숙) 이사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부회장에는 구옥순(아동문학가), 문인선(시인), 송명화(수필가), 이용철(시인), 주순보(시인)이 당선되었고 감사에는 성창경(시인), 오선자(아동문학가)가 선출되었다. 앞서 제1부 시상식에서 2024년 공로상은 박미정, 정희경, 정경화, 조현숙, 박희선, 윤미순, 박용출 작가가 수상했다. 2024년 《문학도시》 작품상은 탁영환, 김태수, 한희정(시), 이말라(시조), 정은영(소설), 문경희, 이미성(수필), 김춘남(아동문학) 작가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24년 《문학도시》 신인문학상은 수필부문 박삼숙 외 18명에게 주어졌고, 2024년에 가입한 신인회원의 37명의 무대인사가 있었다. 감사보고에 이은 제2부 2025년 정기총회의 안건 ▶2024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 보고 승인의 건 ▶2025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이 모두 통과되었다.

## 부산연극협회 제19회 부산연극상 시상식 개최

### 1. 20.(월) 오후 4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부산연극협회에서 제19회 부산연극상 시상식을 지난 1월 20일 오후 4시에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서 가졌다. 시상상은 '올해의 공연 BEST 3'와 특별상, 예인 연극상과 특별 공로상, 새로운 시선 부문에는 각각 상장과 부상이 주어졌고, 올해의 연극인상 3명에게는 각 100만원의 상금과 상장, 젊은 연극인상 2명에게도 각 1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하였다. 신설된 '올해의 공연 베스트 3'은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연출 오정국), <슬픔이 찬란한 이유>(연출 김숙경), <컨테이너>(연출 허석민) 등 3편이 선정되었다. 특별상은 극단 동그라미그리기의 <집을 떠나며> 총괄 기획자인 고 조일영이 수상하였고, '올해의 연극인상'은 김숙

경(희곡), 우명희(배우), 이기호(연출) 3명이 수상했다. '젊은 연극인상'은 극단 아이택 대표를 역임한 양승민과 연출가 허석민에게 주어졌고, '예인 연극상'은 손병태 전 부산연극협회 회장이 받았다. 특별 공로상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인 박철중 의원에게 주어졌고, '새로운 시선'상은 '예술은 공유다' 어댑터 씨어터(대표 심문섭)에서 받았다. 특히 올해는 원로 연극인 이화진 회원과 전 부산연극협회장이자 부산예총 회장을 역임한 김동석 회원의 시상금 일부 기부로 연극인상과 젊은 연극인상의 시상에 보탬이 되었다. 부산연극협회는 부산연극을 위해 애쓰는 연극인들에게 수여되는 부산연극상 후원인(단체)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부산연극상은 선정 부문 확대, 선정 방식의 변화 등 기존 부산연극상의 틀에서 벗어나 더욱 다양하고 새로운 방식으로의 변화를 모색해 진정한 부산 연극인들의 축제의 장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 부산미술협회 2025년도 정기총회와 오늘의 작가상 시상식

### 1. 23.(목)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부산미술협회 2025년도 정기총회가 1월 23일 오후 3시에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서 개최되었다. 총회에서는 시상식에 이어 2024년 결산 보고와 2025년 사업계획이 보고되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제24회 오늘의 작가상 및 공로상 시상식과 초대작가 인정서 수여식도 열려였다. 오늘의 작가상 본상은 최시복 공예가가 받았고, 청년작상은 한국화 이지훈 화가가 수상했다. 공로상은 한국화 관승 이정근, 서양화 김용달, 조각 문병탁, 판화 한성희, 공예 장연우, 디자인 강재철, 서예 김후분, 영상설치 임상국, 문인화 오동수, 수채화 조귀선, 민화불화 김재춘 등 11 분과별로 수여되었다. 부산미술대전 초대작가 인정서 수여식에서는 서

양화부문 김남영, 김영복, 김정운, 김현주, 조각부문 노애란, 공예부문 이은지, 서예부문 감해경, 강길희, 김경주, 김희연, 김승수, 도현정, 연진숙, 유정아, 이영락, 장민근, 지인숙, 최인호, 하종길, 서금옥 · 문인화부문 김재경, 김해구, 김현경, 김희연, 신해식, 여윤옥, 오필은, 윤혜반, 이애선, 이화영, 정옥연, 하봉애, 한서현, 홍춘도, 수채화부문 김옥선, 민화·불화부문 이현승, 장정숙, 정지영 등의 화가들이 수상했다.





‘unseen’  
리앤배 이우림 작가 개인전

1. 14.(화) ~ 2. 22.(토)  
리앤배

이우림 작가는 숲에 서식하는 다양하고 기하학적인 모양을 가진 식물이나 꽃에서 흥미로운 요소들을 포착한다. 숲은 작가에게 안식처이자 상념을 떨쳐버리는 공간이다. 작가는 이를 섬세한 묘사와 감각적인 표현으로 구현해냈다. 작품 속 식물들은 열대식물, 온대식물, 야생화 등 얼핏 보면 서로 조화롭게 보이지만 동일한 환경에서 상상할 수 없는 비현실적 숲속에 존재하고 있다. 작가가 상상력으로 빚어낸 이 숲은 현실과 비현실이 공존하며 조화로운 공간이다. 이 숲속에서 유유자적하게 산책하며 잠시나마 현실에서 벗어나 안식을 취할 수 있을 것 같다.

문의 051)756-2111



〈엔니오 모리코네  
시네마 OST 콘서트〉

2. 7.(금) 오후 7시 30분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국경과 세대를 뛰어넘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영화 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코네, 그의 음악회가 다시 한번 돌아온다. 그가 참여한 대표적인 작품은 영화 〈시네마 천국〉, 〈피아니스트의 전설〉, 〈미션〉,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등이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앞선 대표작과 더불어 영화 〈러브어페어〉 〈석양의 무법자〉 〈황야의 무법자〉 〈칼리파 부인〉 〈말레나〉 〈언터처블〉이 있다. 음악회 출연진으로는 영아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 조완수, 소프라노 박현진, 테너 홍지형, 피아노 홍선화가 있을 예정이다. 각 영화의 OST를 듣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새 영화의 한 장면이 절로 떠오를지도 모른다. 문의 051)550-6611



제6회 〈One Piano  
Two Pianists〉 정기 연주회

2. 15.(토) 오후 5시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2019년부터 기획 음악회로 꾸준히 진행되어 온 〈One Piano Two Pianists〉가 이번 겨울에도 제6회로 다시 돌아온다. 박나회는 부산대 음악학과 피아노 박사 전공을 수료한 음악인으로, 동료 및 제자들과 함께 연주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부산대 음악학과를 졸업한 김지은, 오현지 외에도 김아영이 함께 연주를 진행한다. 박나회가 부산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졸업해 인연이 깊은 만큼, 부산대 예술대학 음악학과의 후원을 받아 개최된다. 피아노 독주, 4 hands, 6 hands 등 다채로운 피아노의 선율이 관객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010-3736-7175



### 〈친정엄마와 2박 3일〉

2. 15.(토) ~ 2. 16.(일)  
 토요일 오후 3시, 오후 6시/  
 일요일 오후 2시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15년째 깨지지 않은 인터파크 티켓파워상 최다 수상 기록! K-신파 및 가족신드롬을 일으킨 전설적인 공연이 찾아온다. 데뷔 61년 차 베테랑 엄마 강부자와 현실 속 딸의 모습을 그대로 실현해내는 윤유선이 뭉쳤다. 엄마의 전화 한 통 살갑게 받아주지 못하던 바쁜 각쟁이 딸, 미영. 엄마는 갑자기 본가로 내려온 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진작 내려와 보지 못해 가슴 아픈 미영과 엄마인 자신이 못나 자식을 고생시키는 건 아닌지 후회하는 엄마. 공연 속 인물들에게서 현실 속 우리의 감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배울지도 모르겠다.

문의 1544-6933



### 제2회 〈부산학생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2. 16.(일) 오후 5시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부산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원은 모두 초2~고3까지의 학생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단원들은 혼자가 아닌 함께 하는 오케스트라로 하모니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고 예술교육을 통해 협동, 이해, 질서, 소속감, 책임감의 가치를 느낄 기회를 가진다. 지휘자인 정현진은 정기연주회와 봉사 연주, 음악캠프를 개최하여 지역사회 봉사과 클래식을 통한 교류 및 화합을 추구한다. 그와 함께하는 강사진과 단원들도 같은 생각일 것이다. 학교가 아닌 무대에서서 연주를 통해 화합의 선율을 연주할 꿈나무들의 모습은 벌써 미소를 짓게 만든다.

문의 010-8524-0069



### 〈지브리를 품은 클래식, 너와 함께 만든 눈사람〉

2. 23.(일) 오후 3시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클래식과 지브리가 만났다. 어릴 적 우리의 동심을 자극하던 지브리 음악과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음악을 함께 감상할 좋은 기회이다. 본 공연은 지브리 OST를 메인으로 다루는 만큼, 남녀노소를 모두 다 아우르는 가족 공연이 되기에 충분하다. 프로그램으로는 영화 여인의 향기, 버랑 위의 포뇨, 마녀 배달부 키키, 어른제국의 역습(뽕구는못빌려 극장판), 원령공주, 이웃집 토토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하울의 움직이는 성 등이 준비돼 있다. 지브리 음악은 아이의 동심과 어른의 메마른 동심도 다시 돋운다. 당신이 어느 나이든, 연주를 듣는 순간에는 아이가 되어 있을 것이다.

문의 010-5029-5807



**‘우아한 거짓말’ 메이븐 개인전**

2. 3.(월) ~ 2. 28.(금)  
 평일 오전 10시 /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케이브이아트갤러리

꽃은 아름다움이 함축된 축복의 상징임과 동시에, 슬픔을 전하고 비보를 대신해 주는 고마운 오브제다. 그래서 대다수의 현대인은 꽃을 그릴 때 알록달록한 색을 띠는 정형화된 잎과 줄기만을 그리기 일쑤이다. 하지만 작가는 정형화되지 않은, 추상적인 꽃을 그려냈다. 어여쁜 꽃의 모습을 유지한 여러 색이 아닌, 하나의 색에만 집중한 꽃은 내면의 우울한 감정을 형상화해 냈다. 작가는 타인에게 보기 위한 불필요한 화려한 색을 삭제했다. 그랬더니 내면에 숨어있던 본연의 순수한 색을 찾아낸 것이다. 이 꽃이 관객들 스스로 내면의 색을 찾게 도움을 줄지도 모르겠다.

문의 0507-1340-6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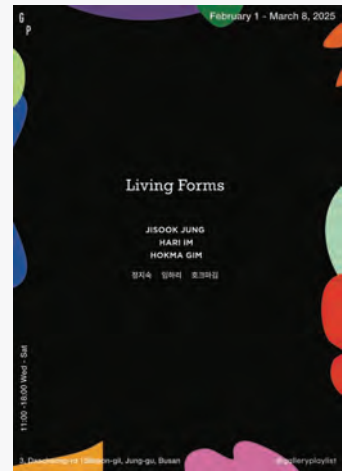


**‘Drinking in the Painting’ 하루.K 개인전**

1. 8.(수) ~ 3. 1.(토)  
 이젤리

이번 전시에서는 하루.K 작가의 주요 작품인 Pour the Tea 시리즈와 다향만리 시리즈 신작이 전시된다. 차의 냄새를 맡으며 찻잔 속 도원경을 거닐다 보면 과거와 현재의 경계를 초월한 여정을 떠나는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하루.K 작가는 내적 성찰을 추구하는 전통 동양화, 특히 산수화의 본질적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공감을 끌어내고자 한다. 그는 전통 동양화라는 고답적인 그릇 속에 현대인의 물질적 욕망을 맛있는 음식으로 담아내어 시대적 간극을 좁히고자 노력한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그림과 현실의 경계 속에서 내적 성찰을 해보는 건 어떨까.

문의 051)756-2110



**‘Living Forms’ 정지숙, 임하리, 호크마김 3인전**

2. 1.(토) ~ 3. 8.(토)  
 갤러리 플레이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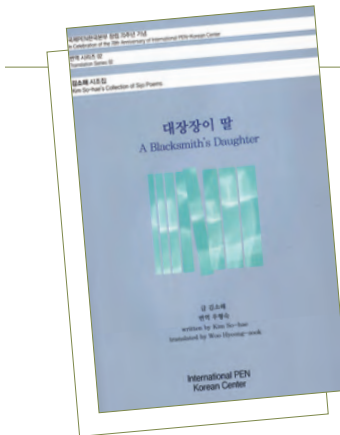
‘Living Forms’는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가진 고유한 개성과, 이들이 관계 속에서 형성하는 유기적인 연결에 대해 탐구하는 전시다. 정지숙 작가는 클레이를 주요 매체로 삼아 생명력과 직관적 감각을 탐구하는 작업이 이어가고 있다. 임하리 작가는 보이지 않는 감정과 에너지를 보이는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생명의 본질과 감정의 중요성을 탐구한다. 호크마김 작가는 나무라는 상징적 소재를 통해 각자가 가진 개성과 연결성을 탐구한다. 이번 전시는 특히 다름을 수용하지 못하는 현실과 관계 속 갈등을 넘어, 존재의 개성과 그들이 맺는 관계에서 발견되는 균형과 조화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문의 010-5029-5807



**아닌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도 아니고 강준철 / 작가마을**

시인은 이 시점에서 우리 시에 어떤 면이든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시론에 변화가 없다는 뜻이다. 시인은 시대와 사회에 맞는 보편적인 시학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나름의 시학을 정립하고 시를 전망하고자 한다. 한국 현대시의 서정시 중심의 흐름은 100년 가까이 변화가 없었다. 다양성이 없고, 주류인 서정시 자체도 별 변화가 없다. 시인은 나름의 변화를 시도했다. 사물에는 경계가 없다. 경계를 허무는 시, 일체의 대립적인 것을 해체하는 시, 곧 전위시를 지향했고, 지금까지 써온 전위시를 정리해 시집으로 묶었다. 그리고 한국시의 변혁을 갈망했다. 하늘 아래 새로운 문학은 없다, 진리는 그 역도 진리다, 언어는 놀이를 좋아한다, 언어는 기호의 특수한 체계일 뿐이다,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 아니다, 시는 작가의 것이 아니다 등의 시집 목차 중간 제목들에서 시인의 시도가 읽힌다.



**대장장이 딸 A Blacksmith's Daughter 김소혜, 번역 우형숙 / 국제PEN한국본부**

짧은 시 깊이의 의미, / 시조의 깊이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 사랑한다는 그 마음 하나로 / 여기 섰습니다. / 백년의 고백입니다. 시인의 말 서문에서 시집을 함축하고 있다. 국제PEN한국본부 창립 70주년 기념 번역 시리즈로 발간된 시집으로 국문과 영문 번역으로 엮여진 시집이다. 시인이자 번역가인 데이빗 맥켄 전 하버드대 교수는 서문에서 시인의 시를 '마법의 시조'라며 「이것! This One」을 인용한다. 세 줄짜리 시 쓰느라 / 냄비를 태워버렸네 // 공들기로 치자면 / 석 줄이나 열 줄이나 // 아무리 / 험하더라도 / 냄비 값은 되려나?(전문). 시인의 시조 종장 첫 마디에는 항상 '상황의 전환'이 이루어 지는데 이 시도 종장에서 반전을 보이며 은근히 놀라운 일과 의문점을 피력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프레임으로 달힌, 그러나 열린 김정화 / 수필과비평사**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김정화는 자신의 두 번째 평론집에서 프레임의 이동과 해체에 집중하고 있다. "서사구조"를 통해 기억을 재현하고 재구성하면서, 사회적 페르소나를 통해 바라보는 세계에 속한 이들이 끊임없이 "자기갱신"하는 시대에 대한 성찰을 "프레임"이라는 도구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파레르곤(프레임)이 작품을 발생시킨다'는 자크 데리다의 말처럼, "프레임 안에 있는 작품들만 중요하게 생각해 왔음을 상기하면서, 틀을 통해 작품을 바라볼 때" 파레르곤의 바깥 또한 주목해야 한다고 작가는 말한다. 프레임의 안에서 바깥을 상상하는 일은 "규칙을 넘어 의식의 탈주를 감행"하게 만들지만, "시선의 권력"을 경계하는 김정화의 시선에는 달혀있는 것을 기어고 열어젖히는 강력한 힘이 서려 있고, 이번 평론집은 그러한 작가의 힘이 여실히 담겨있는 단단한 결실이다.



**황혼의 은빛 향연** 현형수 / 도서출판 명성서림

시인의 11번째 시집이다. 시인은 세월이 가고 나이가 황혼에 접어들어 시작한 문학의 길은 밝은 빛이 온 세상을 고루 비추어서 만물의 성장에 원천이 되었듯이 의욕을 가지게 되면 용기와 생기가 강렬한 의지에 좌절을 극복하게 되고 현존의 가치로 세상을 이기며 스스로의 삶을 다스리게 되었다 했다. 문학은 자신의 분신이나 영혼같은 친구라고 생각하고 밤낮 함께 걸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작품을 쓰기 위해 사금을 선별하듯 고르고 다듬듯이 시집을 엮었다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꽃 진 자리 첫가을 들뜬 시절의 녹음이듯 / 만개한 산 역새 낭창낭창 은빛 향연 / 아름다운 풍경으로 오는 / 몸짓을 보며 저무는 황혼길 / 홀로 가는 내가 문득 가슴에 / 나이 셈해 보며 가슴앓이로 오던 날(「황혼의 은빛 향연」 중 일부). 시인은 부산에 살며 고향 제주의 오름과 굴부리 능선을 소재로 시를 쓰고 있다.



**아버지와 합마술드** 정남순 / 해암

시인의 아홉 번째 시집이다. 시인의 시는 '장소에 대한 사랑으로 피어나는 시훈의 울렁임'라 정의하고 있다. 그의 시에는 고향 통영을 비롯해 아름다운 풍경의 장소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동일성의 고향이라 부를 수 있는 이상향에 대한 그리움이다. 초록치마 흰 저고리 / 커브 길에 선 어머니 / 보였다 사라지는 이별(「전통 가는 길」 부분). 입속에서 맴돌았던 아버지의 영어 / 영원히 잊히지 않는 이름 '합아무개'(「합아무개」 부분). 두편의 시가 보여주는 정서는 그림움이다.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장소의 풍경으로 그리고 있다. 시의 정서로 표현된 장소와 기억은 시인에게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향수이다. 시인에게 시는 기쁨이고 위안이었다. 정신의 역마살이 시의 곳곳에 묻어났고, 시인은 고단한 여행자였다. 덧없어도 인생은 아름답고 끊임없이 시를 쓰고 사랑을 노래한다고 서문에 쓴다.



**베란다** 박미정 / 세종출판사

「베란다」는 작가에게 중요한 공간이다. '베란다'라는 장소의 모든 것은 작가에게 있어서 삶을 회고하고,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장소다. 베란다에서 맡는 차츰 향기는 행복했거나 불행했던 과거를 떠오르게 한다. 베란다에 놓인 호접란은 차 향기에서 기인한 작가의 서사 총동을 더욱 극적으로 완성해 준다. 그리고 베란다에서 맞이하는 날씨도 감정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천둥 번개 이후 소강상태에 내리는 비는 유토피아적 감상을 불러일으킨다. 비 갠 하늘에서 내리쬐는 따뜻한 햇살은 정갈한 마음을 가지게 해준다. 작가는 이러한 외부 요인에서 내면의 변화를 가졌다. 그 변화를 글로써 담아냈다. 베란다에서 다듬어졌을 이 책은 총 5부로 나뉜다. 1부는 작가의 언어에 대한 고찰을 엿볼 수 있는 '언어의 직공'으로 시작한다. 2부는 적응과 도전으로 시작, 3부는 수필의 제목인 '베란다'로 시작한다. 4부는 '썩터는 어디인가'로 시작, 5부는 '새해 첫날의 단상'으로 시작해서 '한두 번이 아니게 하소서'로 마무리한다.

# 월간 『예술부산』 광고지면안내

## What?

- 예술 관련 단체 또는 기업 광고
- 각종 행사, 공모, 전시, 공연, 신간 광고 외

## Where?

- 표2 (앞표지 안쪽)
- 표2대면 (앞표지 안쪽 우측면)
- 표3대면 (뒷표지 안쪽 좌측면)
- 표3 (뒷표지 안쪽) *마감!*
- 표4 (뒷표지) *마감!*

## How?

- 광고 사이즈 : 가로 200 × 세로 260mm
- 문의 : 051)612-1372 / artbusan1997@naver.com

### “월간 『예술부산』은”

1997년 창간된 **종합 예술 잡지**입니다.

부산에서 전시·공연되는 예술의 성과를 집대성하고 예술인들의 활동과 업적을 아카이브하며 부산 예술계의 수준 높은 예술문화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부산만이 아닌 **전국으로 배부**됩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및 전국 지회·지부, 언론사, 국립중앙도서관 및 부산의 도서관, 부산은행 전 지점, 부산의 주요 갤러리·공연장, 공공기관, 시·구청, 일반 정기구독자 등.

MECENAT & SUBSCRIPTION

부산의 예술문화를 사랑하는 당신을 메세나로 모십니다.



메세나 광장

MECENAT

『예술부산』은 메세나가 되어주신 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그동안 기반을 닦았습니다. 『예술부산』과 함께 부산의 예술 문화 발전에 앞장서는 동반자가 되어주실 메세나를 찾습니다.

메세나 광장

방 성 빈 BNK부산은행 은행장

정 은 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예술부산』을 후원해주시면

**첫째**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1항 5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1항 5조에 의거하여 세제혜택을 드리며,

**둘째**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모든 문화행사에 우선적으로 초대하고,

**셋째** 월간으로 발간되는 『예술부산』을 보내드립니다.

정기구독

SUBSCRIPTION

월간 『예술부산』은 부산 시민과 예술문화인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서면 영광도서에서 해당 호를 구매할 수 있고(정가 5,000원) 1년 정기구독을 신청하면 50% 할인된 금액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예술부산』 정기구독 신청

전화 051)612-1372

팩스 051)631-1378 또는

**이메일** artbusan1997@naver.com을 이용하여 구독신청을 하시고 **1년간 구독회비 30,000원**을 입금하시면 해당 호부터 보내드립니다.

부산은행 101-2024-8255-00

예금주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예술부산』은 여러 장르에 걸친 예술문화의 향기를 더욱 많은 회원들과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역사박물관

# 우리 자본시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위 치 | 부산국제금융센터 (BIFC) 51층

방문 전 관람문의 (051-662-2559)

관람료는 무료이며, 토/일 ·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 문화예술로 쌓아온 57년 부산은 행복합니다

문화로 웃음을 기웠습니다  
예술로 일상을 빛냈습니다

부산의 행복이 문화예술로  
더 커질 때까지  
지난 57년처럼, 멈추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BNK가 함께 가겠습니다

**BNK** 부산은행



정가 5,000원



9 4771976 974008 02  
ISSN 1976-9741

[이 광고는 생성형 시로 제작되었습니다]